

11.3 학생독립운동
48년
11.3 학생독립운동
48년

48년
11.3 학생독립운동
48년



48년

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48년
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기획 이재남(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오경미(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박혜경(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허종필(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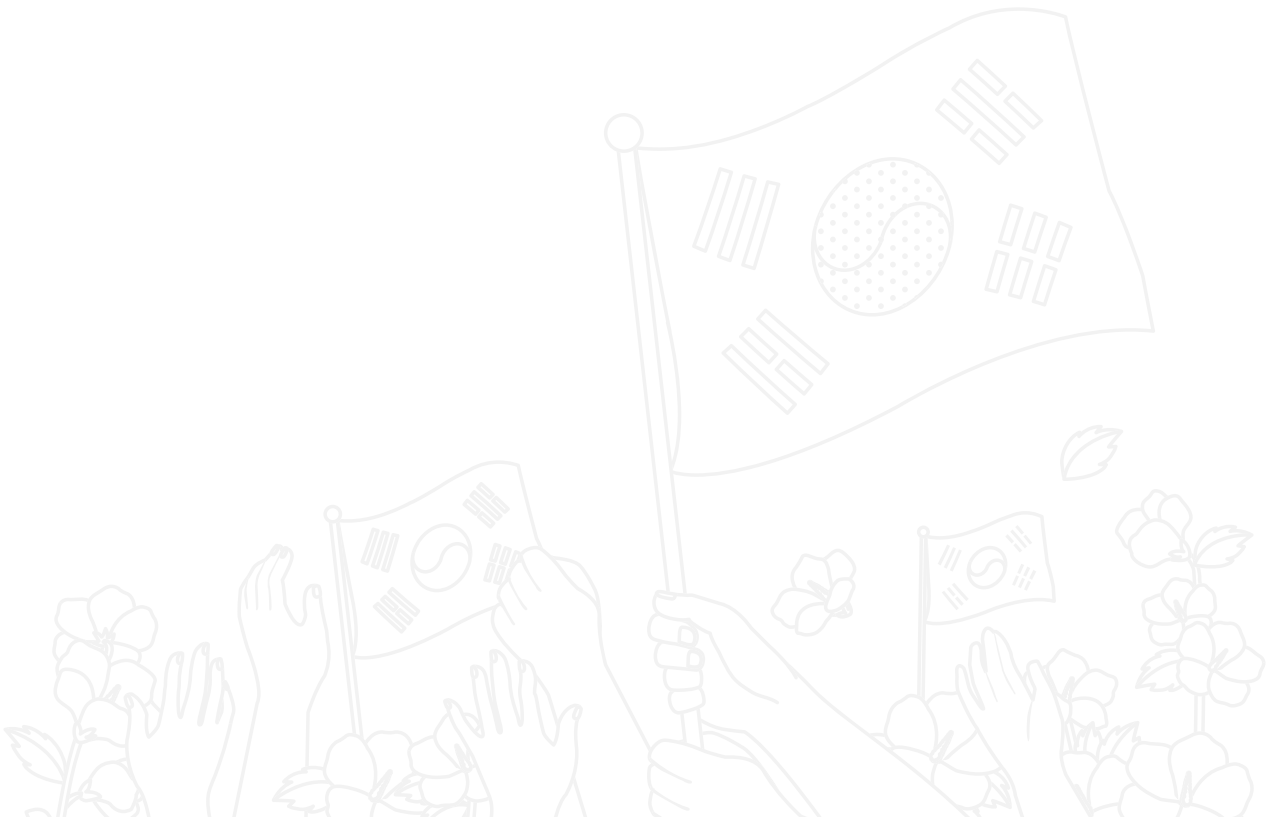
집필 신봉수(광주예술고등학교 역사교사)
김보름(문화중학교 역사교사)
황행자(광주송일중학교 수석교사)
송운혁(광주서석고등학교 역사교사)

검토 노성태(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윤덕훈(수완하나중학교 역사교사)
강민경(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역사교사)
유민지(장덕고등학교 역사교사)

발행일 2019.10.
발행처 광주광역시교육청
발행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만든곳 디자인 이스 마인

48^문 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인사말



“ 11·3 학생독립운동의 의의,
가치 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이 꼭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

2019년은 참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임과 동시에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90년 전 학생들은 일찍부터 수업과 독서활동 등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깨우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제에 과감하게 항거했던 의로움을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와 민족의 혼란에 눈감지 않는 의로운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온 나라의 학생들이 들불처럼 함께하였고, 멀리는 해외까지 확산되어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의로운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이라는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자료는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학생 조직, 11월 3일 당일 상황, 전국 해외로의 확산, 법정투쟁, 정신 계승’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부록에는 당시 11·3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전국의 320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의의, 가치 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이 꼭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 10.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11·3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광주제일고등학교



11·3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옛 나주역



옛 광주역
광주 동부소방서



동문다리
대인시장 입구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11.3 학생독립운동

목 차

인사말

2 광주광역시 교육감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 13 1. 11·3 학생독립운동은 왜 전라도에서 시작되었을까요?
- 15 2. 전라도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18 3. 일제의 식민지 민족 차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20 4.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저항했나요?
- 22 5. 광주 지역 맹휴투쟁의 서막, 야구시합 사건은 무엇인가요?
- 24 6. 1928년의 대맹휴투쟁의 발단이 된 '이경채 사건'은 무엇인가요?
- 25 7. 광주 학생들은 '이경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저항했나요?
- 27 8. 나주-광주 간 통학열차에서 일어난 '운암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 29 9. 11·3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 31 10.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 박준채는 1929년 10월 30일 그날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 33 11. 광주의 첫 번째 학생조직인 성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36 12. 성진회가 해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7 13. 성진회 결성의 주역은 누구인가요?
- 39 14.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 중앙부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요?
- 40 15. 각 학교별로 조직된 비밀결사는 무엇이었나요?
- 42 16. 김기권 문방구점과 장재성 빵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1월 3일, 그 날

- 45 17. 왜 11월 3일이었을까요?
- 46 18. 11월 3일 첫 충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47 19. 광주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49 20. '광주역 사건' 이후 학생들의 대책회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50 21. 대책회의 이후 학생들의 시내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 52 22. 학생들의 1차 시위에 대해 일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 53 23. 1차 시위 이후, 사회 각 계층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 54 24. 11월 12일, 2차 시위는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 56 25. 학생들의 2차 시위에 대해 일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 59** 26. 광주 소식을 들은 목포와 나주 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호응하였나요?
- 61** 27. 전남의 다른 지역 학교의 참여는 어떠했나요?
- 62** 28. 서울의 1차 시위는 언제 일어났나요?
- 64** 29. 서울의 2차 시위는 여학생들이 주도하였다고요?
- 66** 30. 다른 지역의 참여 상황은 어떠했나요?
- 67** 31. 해외의 참여 상황은 어떠한가요?
- 69** 32. 11·3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 71** 33.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 1) 보안법 재판
 - 2) 독서회와 소녀회 재판
 - 3) 성진회 재판
- 75** 34.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 76** 35. 학교에 남은 학생들의 투쟁 방식은 어떠했나요?

48문 48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 79** 36. 1940년대 일어난 ‘무등회 사건’은 무엇인가요?
- 1) 1차 무등회 사건
 - 2) 2차 무등회 사건
- 82** 37. 11·3 학생독립운동은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84** 38. 11·3 학생독립운동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 86** 39. 11·3 학생독립운동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87** 40. 11·3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 1) 광주고보(광주제일고등학교)
 - 2) 광주여고보(전남여자고등학교)
 - 3) 광주농업학교(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 4) 전남사범학교(광주교육대학교)
 - 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탐
 - 6) 옛 광주역과 토교(동문다리)

부록

- 94**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명단

1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 ❶ 11·3 학생독립운동은 왜 전라도에서 시작되었을까요?
- ❷ 전라도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❸ 일제의 식민지 민족 차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❹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저항했나요?
- ❺ 광주 지역 맹휴투쟁의 서막, 야구시합 사건은 무엇인가요?
- ❻ 1928년의 대맹휴투쟁의 발단이 된 ‘이경채 사건’은 무엇인가요?
- ❼ 광주 학생들은 ‘이경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저항했나요?
- ❽ 나주-광주 간 통학열차에서 일어난 ‘운암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 ❾ 11·3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 ❿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 박준채는 1929년 10월 30일 그날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1 11·3 학생독립운동은 왜 전라도에서
시작되었을까요?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학생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반응을 기다리며 집회를 멈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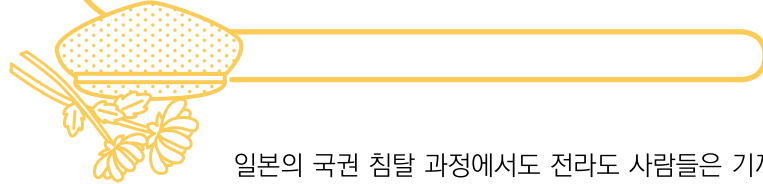
하지만 광주는 신군부의 퇴진과 민주화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갑니다.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5 정·부통령 선거 당일 가장 먼저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시위행진을 시작했던 곳이 광주 금남로입니다. 왜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떨쳐 일어났을까요?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호남의병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은 수원과 강화도 등지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일본이 남쪽으로 내려와 진주성을 공격하려고 하자, 김천일은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다가 아들과 함께 순국하게 됩니다. 광주의 고경명은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둘째 아들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순국합니다. 큰아들 고종후는 다시 의병을 일으켜, 화순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경화와 함께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순국합니다. 김덕령 또한 전국 의병총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도원수 권율이 이끌었던 관군의 주력 부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이끈 수군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외세·반봉건을 외치면서 들고 일어섰던 동학농민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라도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관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던 정읍 황토현 전투, 조선 최정예 중앙군을 물리쳤던 장성 황룡촌 전투와 전주성 점령, 일본군에게 통한의 패배를 당하였던 공주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운동 최후의 격전지였던 장흥 석대들 전투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1 11·3 학생독립운동은 왜 전라도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도 전라도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던집니다. 1909년 한말 호남의병은 전국 의병 전투 횡수의 47%, 참전인병 수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호남창의회맹소 대장 기삼연을 비롯하여 선봉장 김태원·김율 형제 의병장, 전남 제일의 심남일 의병장, 머슴 출신의 안규홍 의병장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일제가 실시했던 소위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은 결국 '호남의병 살육 작전'이었습니다. 3·1 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 3월 10일 작은 장날, 큰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시작됩니다.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광주농업학교 학생들과 광주시민들이 함께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합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전라도 전 지역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전라도 사람들은 정의감과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 불굴의 정신이 11·3 학생독립운동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2 전라도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내 땅을 다시 찾는데 걸린 시간 60년

나주에 눈독을 들인 일제는 1909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영산포 지점을 설립합니다. 또한 이들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나주 지역의 토지를 강탈하여 일본인들을 이주시킵니다. 일본보다 훨씬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일본인들은 나주 지역의 대지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 농민들의 공삼면 토지회수투쟁이 일어납니다. 공삼면은 지족면·육곡면·상곡면으로, 지금의 영산포, 왕곡면, 세지면, 봉황면, 다시면 일대입니다. 나주 지역은 1888년부터 가뭄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1890년 봄 전성창은 밀린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인 뒤에 이 토지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농민들이 겨우 토지를 되찾지만, 전성창은 이 토지를 1898년 경선궁(영친왕의 생모 순빈 엄씨)에 팔아넘겨 버립니다.

이후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를 통해 경선궁을 압박하여 200만원 상당의 토지를 8만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입니다. 공삼면 농민들은 토지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소작료 납부 거부 투쟁, 햇불시위, 면민대회 개최, 총독부에 진정서 제출 등 필사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전시 동원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은 토지를 되찾지 못합니다.

해방이 되자 공삼면 농민들의 토지는 미군정의 신한공사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야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농민들에게 분배됩니다. 비록 유상 매수 방식으로 되찾지만 농민들이 내 땅을 되찾기 위해 60년 이상 줄기차게 투쟁한 역사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2 전라도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나주의 대지주 구로즈미 이타로

11·3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 지역은 드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주가 1.6%, 자작농이 5.4%, 자소작농이 40%, 소작농이 53%였습니다. 몇몇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로즈미 이타로의 가옥_나주 영산포

또한 나주는 영산강을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1930년 당시 나주의 조선인 인구는 16만 1,822명, 일본인 인구는 3,788명이었습니다. 조선인 소유 토지는 약 5,127만 평, 일본인 소유 토지는 3,732만 평으로, 1인당 소유 토지는 조선인이 310여 평인 데 비하여 일본인은 10,000여 평이었습니다.

영산포구가 있는 영산면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의 토지보다 오히려 일본인들의 토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가구당 소유 토지는 조선인이 1,800평인데 반하여 일본인은 51,500평에 달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당시 나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주는 일본인 구로즈미 이타로였습니다. 구로즈미는 동척 영산포 지점을 등에 업고 나주 지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였습니다.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이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330만평의 토지는 전남대학교보다 11배가 넘습니다. 그는 대지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산포 우편소장을 거쳐, 조선승입(가마니)주식회사 사장, 영산포운수창고회사 전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조선전기주식회사 사장, 전남농회 부회장 등을 거치며 수많은 훈

장을 받았습니다. 나주 영산포에는 1935년에 지은 구로즈미 가옥이 남아있습니다. 기와 등 모든 건축 자재들을 일본에서 가져와 지은 집입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 조선의 농촌은 점점 몰락해갑니다.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학생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나갔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3 일제의 식민지 민족 차별 교육은 어떻게 진 행되었나요?

1911년 8월 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령의 내용은 일본어 보급, '충량한 국민' 육성, 노동력 착취를 위한 실업교육 장려, 우민화교육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학교 명칭은 일본인은 소학교와 중학교, 한국인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구분하였습니다. 수업 연한 역시 보통학교는 6년(혹은 5년)에서 4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을 휩쓴 이후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교사가 제복에 칼을 차고 수업하는 것과 조선인에게만 실시하던 태형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1922년 신교육령을 발표하여 수업 연한을 일본과 동일하게 고쳤습니다.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지역에 따라 5, 4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확대하는 등 유화정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어(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일본 역사 시간을 늘리고, 우리 역사는 축소하고 왜곡해서 가르쳐 충성스러운 황국신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보 국어의 경우 '일본어급한문(日本語及漢文)'은 주당 32시간으로 배정되었으나, '조선어급한문(朝鮮語及漢文)'은 주당 12시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조선어급한문 교과서도 조선어는 총 62개 단원에서 8개 단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문이었습니다.

역사의 경우 6년제 보통학교 교과 과정에는 역사(일본역사)와 지리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 및 지리는 교과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일본사를 가르치는 '역사지리'가 매 학년당 주당 3시간씩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사는 일본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내용도 '임나일본부', '신공황후의 신라침공' 등 식민사관을 강조하여, 한국 학생들은 조작된 한국

사만을 강제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늘 일본의 천조대신과 조선의 단군왕검이 형제지간이며, 천조대신이 누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른바 '동조 동근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조국 독립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져 갑니다. 광주고보(현 광주제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송홍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송홍 선생님은 당시 광주고보 한문교사였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에 틈틈이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민족의식이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흉계에 분노하였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4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저항했나요?

1920년대 학생들의 대표적인 저항 운동은 동맹휴학투쟁(맹휴투쟁)이었습니다. 맹휴투쟁은 학생들이 학교에 일정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등교거부, 수업거부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계
건수	23	52	57	14	48	55	72	83	78	482

맹휴투쟁은 1920년대 점차 증가하다가, 1927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는 13도 전체에서 맹휴가 전개될 만큼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전개된 맹휴는 주로 보통학교(초등학교) 중심의 맹휴였습니다. 따라서 맹휴의 성격이 단순하고 일회적이었으며 투쟁성도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927년을 기점으로 중등학교의 맹휴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대 중등학교의 맹휴 건수가 1926년 33 : 20에서 1927년 36 : 36, 1928년 32 : 49로 역전되었습니다. 또한 맹휴의 성격도 식민정치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부에서도 1927년 이후의 맹휴에 주목하였습니다. 1927년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맹휴의 근본 원인을 “침체한 교육제도가 일취월장하는 학생의 사상과 충돌해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교육현실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맹휴의 원인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 ① 학교설비, 교구, 교칙, 학과 기타에 기인하는 맹휴 : 232건
- ② 교원 배척에 관한 맹휴 : 434건
- ③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맹휴 : 44건
- ④ 생도 간에 일어난 일에 기인한 맹휴 : 13건
- ⑤ 지방문제에 관한 맹휴 : 5건
- ⑥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으로 인정되는 맹휴 : 74건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교원배척’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망국의 국민성’을 언급하여 민족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 등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교사의 행위가 원인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여러 차례의 동맹휴학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광주고보에서는 총 4차례의 맹휴가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조사에 의하면, 4회 이상 맹휴가 발생한 학교는 관립과 공립의 경우 광주고보가 유일합니다. 사립은 고창고보(6회), 휘문고보(6회), 경신학교(5회), 송도고보(5회), 보성고보(4회), 보광학교(4회)에서 4회 이상 일어났습니다. 광주고보에서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맹휴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광주고보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5 광주 지역 맹휴투쟁의 서막, 야구시합 사건은 무엇인가요?

광주고보의 맹휴 횟수는 4번으로 전국 중등학교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광주고보의 최초의 맹휴투쟁은 1923년 1월 일본인 교사가 이유 없이 학생을 구타하자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맹휴투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맹휴 투쟁이자 광주 지역의 본격적인 맹휴투쟁은 1924년 6월에 일어납니다. 광주고보와 광주의 일본인 선발팀 사이의 야구경기가 발단이 됩니다. 당시 야구시합은 박빙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투수전이었습니다. 8회가 끝날 때까지 광주고보가 1: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9회 초, 일본인 선발팀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다 아웃을 당하자 선수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때 일본팀 응원단장 안도(安東)가 달려들어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심판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또한 광주고보 선수를 잡아당기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광주감옥 의사인 안도는 평소에도 한국인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고보 학생들은 안도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안도의 행패에 화가 난 광주고보 학생들이 안도를 구타하면서 한·일 학생들 사이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싸움은 경찰에 의해 해산되지만, 광주고보 선수들만 경찰에 잡혀갑니다. 경찰에 학생 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바로 광주고보 교장 구리노였습니다. 분노한 400여 명의 광주고보 학생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선수들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은 다음날 풀려나지만 교장은 400명에게 무기정학을 내립니다. 이에 학생들은 교장 사퇴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맹휴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 맹휴투쟁은 9월이 되어서야 수습되지만, 맹휴투쟁을 주도한 고광우·국채덕·최현주·지창수 등이 퇴학을 당합니다.

세 번째의 맹휴 투쟁은 1927년 5월 말에 일어납니다. 광주고보 학생들은 만주 봉천(심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양고보에 들른 학생들은 깜짝 놀랍니다. 시설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공립인데도 평양고보의 시설은 이렇듯 훌륭한데 광주고보는 형편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5월 하순 광주고보 학생들은 “한·일 학생들의 교육적 차별을 철폐하라”, “물리·화학 교실을 신설하여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라”, “유도·검도의 무술 교과목을 신설하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맹휴투쟁에 돌입합니다.

맹휴 3일 만에 시라이 교장은 학생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미봉책에 불과하였지만, 세 번째의 맹휴 투쟁은 단기간에 마무리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6 1928년 대맹휴 투쟁의 발단이 된 '이경채 사건'은 무엇인가요?

세 차례의 맹휴투쟁으로 학생들의 저항의식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1928년 6월에 일어난 '이경채 사건'입니다.

1928년 3월 28일 밤, 광주고보 5학년 이경채는 친구인 박병하·윤해병과 함께 송정리의 보통학교에서 등사판과 잉크 등을 박병하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4월 초 이경채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선언서와 격문을 인쇄하여 광주 역전 파출소, 광주고보 앞, 송정리 일본신사 앞 등 10여 군데에 붙이고 도내 각 중등학교와 경찰서 등에도 보냅니다. 경찰들은 경악하면서 주동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두 달 여가 지난 6월 8일 이경채가 체포됩니다. 경찰은 사건 내용을 바로 광주고보 시라이 교장에게 통보합니다. 화가 난 시라이 교장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6월 19일에 이경채를 퇴학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은 광주 지역 대맹휴 투쟁의 발단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이경채의 퇴학 이유를 밝히고 재판 결과 무죄가 되면 복교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라이 교장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학교 측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대표들은 맹휴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졸업반은 맹휴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경채와 같은 학년인 5학년 학생들도 참여하기로 합니다. 1928년 6월 26일 아침,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투쟁을 결의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7 광주 학생들은 '이경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저항했나요?

학교는 학생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기는커녕 긴급 직원회의를 열어 27명을 주동자로 퇴학시키고 281명을 무기정학에 처합니다.

광주고보의 총 학생 수 500여 명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학생들의 투쟁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7월 9일 일본에 유학 중이던 장재성이 급히 귀국합니다. 그날 밤 장재성은 성진회 회원이었던 최규창, 임주홍, 정우채 등을 모아 맹휴투쟁의 방향을 정합니다. 단순히 학교문제에 그치지 말고 민족적 항일 투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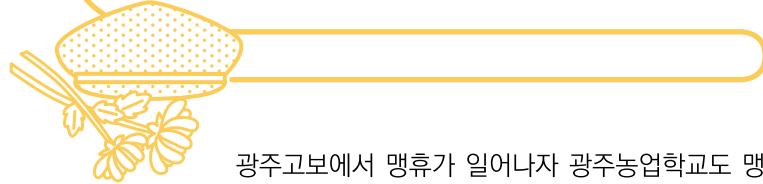
이튿날인 7월 10일, 학생대표들은 최규창의 하숙집에 모여 맹휴중앙본부를 설치하고 학부모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격문을 보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맹휴중앙본부가 주도하면서 학생들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7월 25일에는 도교 광주고보 졸업생 단체의 성명서와 도교 조선유학생 학우회가 보낸 항의문이 학교에 도착하여 투쟁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학교는 맹휴가 일어나자 300명이 넘는 학생을 퇴학·무기 정학시켜 버립니다. 또한 경찰도 맹휴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8월 25일까지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맹휴중앙본부는 학교와 경찰의 압력에 동요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중앙본부 통신경고문”을 보내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보의 맹휴는 9월 17일 학생들의 등교로 4개월 만에 막을 내립니다. 주동자 8명은 재판에 회부하여 징역 10월에서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맹휴 투쟁의 계기가 되었던 이경채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은 39명의 퇴학자를 포함하여 모두 5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7 광주 학생들은 '이경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저항했나요?



광주고보에서 망휴가 일어나자 광주농업학교도 망휴에 돌입합니다. 학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탄압에 나서 주동자 12명을 퇴학시켜 버립니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망휴지도본부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대항하였습니다.

광주농업학교의 망휴는 10월까지 지속되었으나 일제의 폭압적인 탄압으로 끝납니다. 경찰에 잡혀간 학생 가운데 5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8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망휴 투쟁은 일단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투쟁이 실패하거나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망휴 과정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졸업생,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참여함으로써 항일 민족의식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망휴의 목적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사 배척이나 시설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식민지 노예교육의 철폐,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학교의 비밀결사 활동을 바탕으로 망휴중앙본부가 구성되어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망휴를 지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간에 걸친 투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광주 지역의 학생층은 강렬한 항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밀결사 활동과 지속적인 망휴를 통해 단순히 교육 차별문제에서 벗어나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진회나 망휴중앙본부, 독서회중앙부와 같은 통일적인 지도부에 의해 단단하게 결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8 나주-광주 간 통학열차에서 일어난 '운암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광주·전남 지역 교육 중심지인 광주에는 나주, 담양 등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기차 통학생이 광주고보생만 69명, 광주중학교(일본인 학교) 학생은 98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차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 간에 충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운암역 사건'입니다. 1929년 6월 26일은 이경채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대망휴 투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 광주고보 2학년 김기수는 일본인 친구 나리타의 권유로 광주 중학생 전용 칸에 타게 됩니다. 기차가 운암역에 정차했을 때 광주중학교 3학년 곤도가 소리칩니다. “저것 봐! 개고기! 조선인들이 즐겨 먹는 개고기”, “조선인들은 야만인이야”. 이 말을 들은 김기수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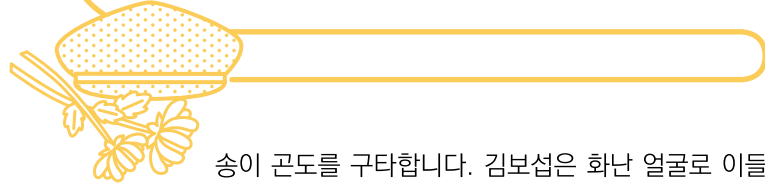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신탕을 즐겨먹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영양섭취를 위해 개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기수도 개를 잡아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조선인은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뱀도 잡아먹고 말고기도 먹는다면?”라고 응수하였습니다.

기차가 광주역에 도착하자 김기수는 쏠살같이 개찰구를 빠져나와 친구 하삼송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삼송은 다시 고보 5학년 김보섭에게 전달합니다. 김보섭은 친구들과 논의하여 곤도의 사과를 받기로 합니다.

6월 28일, 김보섭·오쾌일·최희선 등은 최영회를 일본 학생 통학단장 후지사에게 보냅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후지사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인 학생 칸으로 곤도를 보냅니다. 오쾌일이 추궁하자 곤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기수와 하삼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8 나주-광주 간 통학열차에서 일어난 '운암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송이 곤도를 구타합니다. 김보섭은 화난 얼굴로 이들을 제지하고, 곤도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사과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 후 오쾌일은 다시 곤도에게 타이르듯이 조선인을 야만인이라고 놀린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곤도는 결국 잘못을 사과합니다.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옆구리와 뺨을 맞은 곤도는 불만을 품고 단장 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후지사와의 아버지는 나주경찰서장이었습니다. 나주경찰서장은 바로 통학열차에 형사들을 동승시켜 학생들을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고보생들은 후지사와를 응징하고자 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운암역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싸움인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민족적 감정이 응어려져 있었습니다. 대명휴투쟁 1주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9 11·3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1929년 10월 30일, 오후 4시 45분에 광주역을 출발한 열차가 5시 35분 나주역에 도착합니다.

통학생을 포함하여 30여 명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광주중학교 학생인 후쿠다, 다나카, 스에요시가 광주여고보(현 전남여자고등학교) 박기옥, 이광춘, 암성금자(이금자)를 밀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기차 안에서부터 여학생들을 희롱하였는데, 기차에서 내리고 나서도 계속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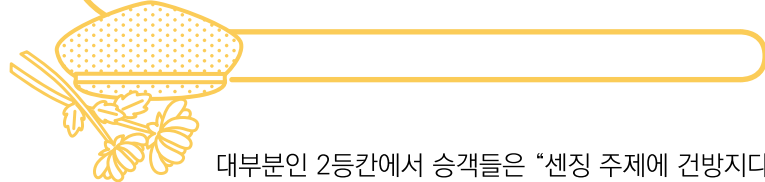
이광춘과 박기옥(오른쪽)

이를 본 박기옥의 사촌동생이자 광주고보 2학년인 박준채가 후쿠다를 꾸짖습니다.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야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해?” 후쿠다도 물려서지 않고 “뭐라고? 센징노 쿠세니”라고 대꾸합니다. ‘센징노 쿠세니’는 ‘조선인 주제에’라는 말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얕잡아 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준채는 후쿠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서로 간에 격투가 벌어집니다. 훨씬 적은 수였지만 울분과 악에 받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의 사기가 일본 학생들을 압도하였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나주 역전 파출소 순사 모리타가 달려와 싸움은 중단됩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박준채가 후쿠다에게 “내일은 학교를 쉬지 말라”고 말하자, 모리타 순사가 박준채의 따귀를 때립니다.

다음날인 10월 31일, 통학열차 안에서 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날 나주역에서의 충돌이 통학열차 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준채를 비롯한 3~4명의 고보생들이 의도적으로 광주중학생들의 칸에 올라탔습니다. 박준채는 후쿠다에게 전날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후쿠다가 거부하자 다시 격투를 벌입니다. 광주중학생들이 대부분인 칸에 탑승하여 격투를 벌일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를 본 차장이 박준채와 후쿠다를 2등칸으로 끌고 갔습니다. 일본인들이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09 11·3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사건'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인 2등칸에서 승객들은 “센징 주제에 건방지다” “센징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11월 1일에는 다툼이 통학생 전체로 확대됩니다. 후쿠다가 전날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학교에 보고하였고, 광주중학교에서는 광주고보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박준채는 교감에게 불러가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통학열차가 광주역을 출발할 무렵, 광주중학교 학생들은 유도교사의 인솔 아래 광주고보생들을 쫓아옵니다. 일본인 학생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족창, 족검 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한국인 학생들에게 구타당하여 일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차 통학생이 아닌 학생까지 포함된 30여명의 일본인 학생들은 “어제는 우리 학교 생도가 당했으니 오늘은 우리가 복수한다.”고 통학열차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인 통학생 20여 명도 기차길을 마주하고 결전에 대비하였습니다. 유도 교사는 후쿠다를 앞세워 박준채를 찾아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두 학교 교사와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보 학생들은 이틀간의 일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 강당에 집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오쾌일의 제안으로 일단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사들도 충돌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차에 같이 승차하여 학생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분위기는 매우 살벌해졌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나 일본인 학생들이나 모두 여러 명씩 짝을 지어 다녔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11월 2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충돌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통학생들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 한·일 학생들의 집단 충돌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10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 박준채는 1929년 10월 30일 그날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나주역 사건은 흔히 '댕기머리 희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나주역 개찰구에서 후쿠다를 비롯한 일본인 학생들이 박기옥, 이광춘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한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문조서를 보면,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11월 9일 광주지방법원 검사의 신문에서 박준채는 후쿠다가 개찰구에서 박기옥의 어깨를 건드리며 나갔고 대합실에서도 앞서 나가며 어깨를 건드렸기 때문에 후쿠다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댕기머리가 아니라 어깨를 밀친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후쿠다와 스에요시도 검사의 신문에서 역시 댕기머리 사건에 대해 진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댕기머리 희롱사건은 “신동아” 1969년 9월호에 쓴 박준채의 회고록 ‘독립시위로 변진한 일 학생총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주역 사건’은 11·3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박준채(1914~2001)는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주역에서의 희롱사건에 격분한 그는 일본인 학생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를 일본인 학생들이 모욕적인 언동으로 맞서면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다툼이 발단이 되어 1929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박준채도 시위에 참여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연소자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준채는 광주고보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박기옥(1913~1947)은 나주 출생으로,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사건'의 주역입니다. 이후 시험 거부·백지동맹 등 항일시위에 참여하다가 강제 퇴학당하고 3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박기옥은 암태도 소작쟁의의 주역인 서태석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박기옥은 201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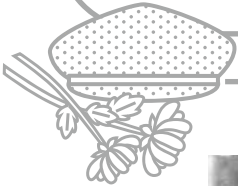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 11 광주의 첫 번째 학생조직인 성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12 성진회가 해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3 성진회 결성의 주역은 누구인가요?
- 14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 중앙부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요?
- 15 각 학교별로 조직된 비밀결사는 무엇이었나요?
- 16 김기권 문방구점과 장재성 빵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1

광주의 첫 번째 학생조직인 '성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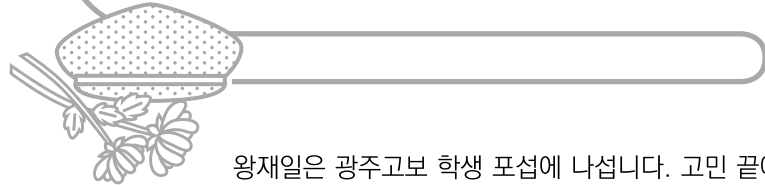


윗줄 좌로부터 김한필, 정종석, 정동수, 임주홍, 채영석
가운뎃줄 좌로부터 안종익, 박인생, 정남균, 왕재일, 장재성, 문승수
맨아랫줄 좌로부터 정우채, 김창주, 김광용, 최규창

일제의 민족차별과 함께 왜곡된 역사수업에 광주고보 학생들은 분노합니다. 특히 1925년 4학년인 왕재일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고민합니다. 그는 22살로 사서삼경까지 독파한 만학도였습니다. 그는 신문배달을 하면서 농업학교 학생인 박인생·정남균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찾아갔던 흥학관은 민족운동가와 각 사회단체의 본거지로, 항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1 광주의 첫 번째 학생조직인 '성진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왕재일은 광주고보 학생 포섭에 나섭니다. 고민 끝에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이 장재성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4학년이었지만 나이는 왕재일이 4살 많았습니다. 왕재일의 제안에 흔쾌히 동조한 장재성은 정남균과 박인생과 만나 의기투합합니다.

활발한 접촉으로 조직이 곧 결성될 것 같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왕재일의 고달픈 나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광주역에서 신문을 받아서 지국으로 가져가야 했고, 구독료 징수, 광고모집 등 잡다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고보 학생 포섭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 1926년 4월 장재성이 광주고보 안종익·최규창과 함께 광주농업학교 박인생·정남균을 만납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 서로 간에 의중을 확인하고 함께 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6년 6·10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자극을 받아 함께할 회원들이 늘어납니다. 마침내 10월 하순 경 왕재일과 장재성이 박인생의 하숙집을 찾아가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성진회, 드디어 결성되다

드디어 11월 3일 저녁 7시, 장재성의 제안으로 지금의 불로동에 있는 최규창의 하숙집에 광주농교 6명, 광주고보 9명 등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모인 15명은 김광용, 안종익, 왕재일, 임주홍, 장재성, 정우채, 채영석, 최규창, 최용호(이상 고보), 김한필, 문승수, 박인생, 정남균, 정동수, 정종석(이상 농교)이었습니다. 함께 하기로 한 담양 출신의 국순엽(고보 4학년)은 집안 제사로 불참하였지만, 결성 이후에는 계속 참여하여 활동합니다. 이날 참석한 가장 어린 학생은 16살의 고보 1학년 정우채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성진회 창립 멤버는 국순엽을 포함하여 총 16명입니다. 출신 지역 역시 광주, 나주, 완도를 비롯하여 제주, 충북 등 다양하였습니다.

모임 이름도 왕재일이 “깨달아 나아가자”는 의미로 제안한 ‘성진회(醒進會)’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령을 채택합니다.

- ① 일제의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
- ②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 ③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총무는 왕재일, 서기는 박인생, 회계는 장재성이 맡았습니다. 회비는 매월 10전씩,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은 사회과학에 관한 책을 읽거나 토론하는 정기모임일로 정합니다. 또한 각자가 회원 확충에 노력하고 비밀을 엄수할 것도 다짐합니다. 회의는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1년이 넘는 산고 끝에 드디어 광주 지역 최초의 학생운동 조직인 성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2 '성진회'가 해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월 두 차례씩 토론하면서 성진회의 의식은 날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채영석이었습니다. 채영석의 형이 광주경찰서 순사부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서 성진회 조직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채영석의 눈을 피해가며 논의한 결과 그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장재성은 고민 끝에 모임 활동을 중지하자고 제안합니다. 성진회가 결성된 지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12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1927년 1월에는 전혀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2월 2일 설날, 장재성이 취한 척 하며 다시 성진회 해산을 제안합니다. 이에 문승수가 맞장구를 칩니다.

2월 4일, 채영석이 자기 집으로 회원 전원을 초대하자, 이 자리에서 장재성은 “비밀 유지도 어렵고, 졸업할 사람도 많으니 해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이에 어떤 회원은 반대, 어떤 회원은 찬성 등 갑론을박이 진행됩니다. 물론 채영석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미리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성진회 해체를 선언합니다.(일제의 판결문에는 3월 경 정남군의 집에서 해체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성진회는 해체됩니다. 하지만 성진회 회원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3 '성진회' 결성의 주역은 누구인가요?

1926년 11월 3일 16명으로 구성된 성진회는 모두가 주역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진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선 인물 4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왕재일(1904~1961)은 구례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일학교에 입학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퇴하였습니다. 그 후 광주청년회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민중계몽 등 교육 강연회에 참석하며 독립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 광주고보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광주고보에 재학 중 민족차별에 대하여 독립에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에 같은 학교 장재성, 광주농업학교의 박인생과 함께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드디어 1926년 11월 3일 최규창에 집에서 성진회를 조직하고 총무를 맡아 활동합니다. “깨달아 나아가자”라는 뜻의 ‘성진회’도 왕재일이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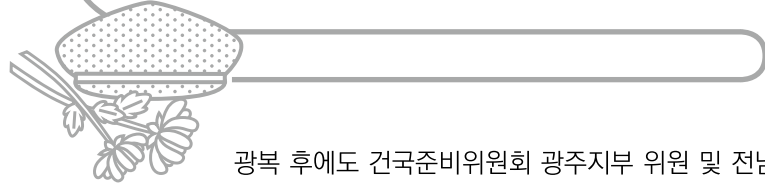
1929년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검거자의 탈환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확립 등 격문을 배포하다가 붙잡혀,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이후 전남운동협의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민운동과 야학회 활동에 앞장서다가 또다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장재성(1908~1950)은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고보에 재학 중이던 1926년 11월 3일, 성진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광주고보 졸업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주오대학 예과에 입학합니다. 일본 유학 중에도 1928년 이경채 사건으로 인한 대명휴투쟁이 발생하자 귀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항일운동에 앞장섭니다. 1929년 6월 귀국하여 ‘독서회중앙부’를 설치하고 각 학교 독서모임을 독서회로 개편합니다.

1929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학생투쟁지도본부를 결성하고 광주학생을 지도하다가 책임을 맡았으나 일제에 체포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장재성이 받은 징역 4년은 11·3 학생독립운동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3 '성진회' 결성의 주역은 누구인가요?



광복 후에도 건국준비위원회 광주지부 위원 및 전남지부 조직부장, 광주청년동맹 의장, 민주주의민족전선 전남대표 등을 맡는 등 민족운동에 앞장섭니다. 남북분단에 반대해 세 차례 38선 이북을 왕래하다가 1948년에 검거되어 광주형무소에 복역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7월에 총살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독립운동 주역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재성은 아직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입니다. 장재성을 비롯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다 폭넓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인생(1903~1929)은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 장재성·왕재일 등과 성진회를 조직하여 서기를 맡아 회의 운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유학하며 항일운동을 펼치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박인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1929년 5월 사망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정남균(1905~1950)은 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농업학교에 재학 중 성진회 조직에 참여합니다. 조직의 기밀누설 위험이 생기자 성진회를 해체하지만 성진회의 해체는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학생들은 항일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정남균 역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모교 독서회와 연락을 취하였으며, 1929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4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중앙부'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요?

1929년 6월 중순, 도쿄 주오대학 예과에 유학중이던 장재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장재성은 광주고보 후배인 김상환과 김보섭을 만나 광주농업학교·전남사범학교와의 연합전선 결성을 논의합니다.

6월 9일 경, 장재성·김상환·김보섭·조길룡·송동식 등 5명이 사직공원 양파정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단위 학교 조직을 지도할 중앙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별 조직이 먼저 만들어지고 중앙조직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능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조직을 먼저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각 학교별로 독서모임들이 있어서 학교별 조직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중앙조직은 각 학교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광주고보 3명, 농업학교와 사범학교 각각 2명씩 총 7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중순, 드디어 양림동 김기권의 집에 8명이 모입니다. 이날 모인 사람은 장재성을 비롯하여 광주고보의 김상환·김보섭·윤창하, 전남사범의 송동식·강달모, 광주농교의 조길룡·김순복 등이었습니다. 이 때 조직된 '독서회중앙부'의 각 부서와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비서 : 장재성
- 조사선전부 위원 : 김상환, 김보섭
- 조직교양부 위원 : 송동식, 김순복
- 출판부 위원 : 조길룡
- 재정부 위원 : 강달모, 윤창하

책임비서인 장재성이 모임을 통솔하였습니다. 조사선전부는 회원모집과 선전·보급을, 조직교양부는 그룹의 편성 및 사회과학 연구방법 지도를 맡았습니다. 출판부는 각종 인쇄물의 인쇄와 배포를, 재 정부는 회비 징수 및 기타 회계 사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원은 주 1회씩 회합하여 협의할 것, 각 학교별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중앙부가 이를 연락하고 통일할 것, 학교별 회원들에게는 중앙부의 존재를 절대 비밀로 할 것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5 각 학교별로 조직된 비밀결사는 무엇이었나요?

‘독서회중앙부’에 이어 각 학교별로 비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각 학교에는 독서 모임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결성이 쉬웠습니다. 학교별 비밀 조직 이름은 ‘독서회’입니다.

광주고보는 독서회중앙부 결성 1주일 후인 1929년 6월 하순, 무등산 중머릿재에서 광주고보 독서회를 조직합니다. 모든 회원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오쾌일·김상환·윤창하·김대원·김보섭을 각 그룹의 책임자로 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회비는 매월 20전으로 하며, 비밀을 엄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장재성은 “조선민족은 일본제국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현 제도를 타파하고 민족의 해방과 새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조직 구성 후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시가행진하는 방법도 연습합니다.

광주농업학교 독서회도 1929년 6월에 결성됩니다. 김순복·조길룡 등은 장재성과 함께 무등산 세인봉에 모여 독서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회원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길룡·이영범·정욱·김순복을 책임자로 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전남사범학교 독서회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여 결성이 늦어집니다. 1929년 7월에 수피아여학교 뒤 양림산에 모여 독서회를 결성하였다가, 9월 중순에 광주형무소 뒷산에서 조직을 개편합니다. 송동식을 대표, 이신형을 조사선전부 위원, 강문범을 조직교양부 위원, 강달모를 재정부 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을 5개 반으로 나누어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회비는 매월 20전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인 소녀회는 다른 학교들보다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1928년 11월 초순에 장재성의 누이동생인 장매성과 박옥련·암성금자 등이 전남사범학교(현 중앙도서관) 뒤뜰에 모여 소녀회를 조직하고, 매월 한 번씩 모여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소녀회는 11·3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다친 학생들의 상처를 붓대로 감싸주며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또한 경찰이 시위학생을 체포하기 위해 등에 분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물수건으로 분필 자국을 지워버립니다. 1930년 1월 13일 기말고사에서는 백지동맹을 주도합니다. 이로 인해 장매성은 징역 2년, 다른 학생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서회가 장기간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직 재정비를 위해 광주고보와 농업학교는 9월에, 사범학교는 10월에 해산합니다. 장재성의 지시로 위장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서회 결성 경험은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됩니다. 11월 12일의 제2차 시위는 바로 독서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

16 김기권 문방구점과 장재성 빵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920년대는 실력양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민립대학설립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주장했던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김기권은 광주고보 3학년 때인 1928년 이경채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대맹휴 투쟁의 주모자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옥 후 김기권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1929년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재성 또한 1929년 6월에 귀국해서 각 학교 독서회를 조직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학교별 독서회 결성을 끝낸 장재성은 8월 중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김기권 집으로 찾아갑니다. 장재성은 이 자리에서 김기권에게 문방구점을 권유합니다. 아울러 독서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소비조합 구성 계획을 밝힙니다.

장재성이 돌아간 뒤 김기권은 아버지에게 문방구점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소비조합을 만든다면 아버지가 반대할 것 같아 장사를 하겠다고 거짓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팔아 500원을 마련해 줍니다. 그 돈으로 당시 광주지방법원 건너편(현 금남로 공원)에 점포를 얻어 문방구점을 차립니다.

장재성을 비롯한 독서회중앙부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기권에게 학생소비조합 형태의 문방구점을 권했던 것입니다. 문방구점을 열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1인당 3원씩 300원을 모으고 김기권이 500원, 나승규가 1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주고보에서 60원, 김기권이 500원을 출자하여 1929년 9월 초순 문방구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김기권 문방구점’이라는 간판을 단 소비조합이 설립됩니다. 운영은 물론 김기권이 담당합니다. 문방구점은 독서회 회원들의 모임 및 토론 장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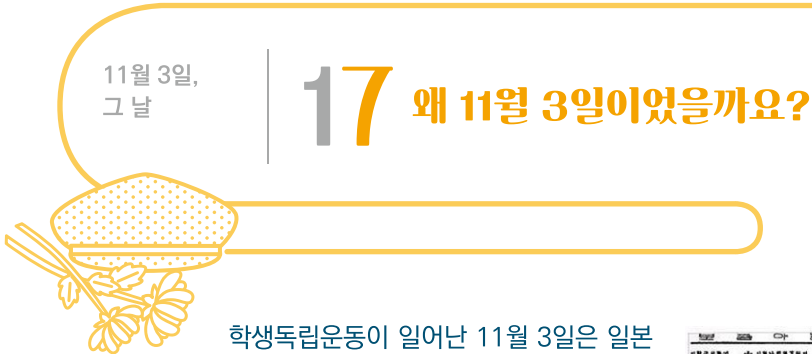
문방구점 바로 옆에는 장재성이 빵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재성이 빵집을 차린 이유는 독서회 모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층은 독서회 회원들의 비밀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빵을 사먹기 위해 들어와서 2층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김기권 문방구점도, 장재성 빵집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학생독립운동이 터지자 김기권은 새벽에 급습한 형사들에 의해 광주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이로 인해 대맹휴 투쟁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온 지 1년도 안되어 두 번째 투옥되어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장재성 역시 학생독립운동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7 왜 11월 3일이었을까요?
- 18 11월 3일 첫 충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19 광주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20 ‘광주역 사건’ 이후 학생들의 대책회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21 대책회의 이후 학생들의 시내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 22 학생들의 1차 시위에 대해 일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 23 1차 시위 이후, 사회 각 계층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 24 11월 12일, 2차 시위는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 25 학생들의 2차 시위에 대해 일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 인물인 메이지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치절로,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축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이 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기념식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신사가 있는 광주공원에서 전남 산 누에고치 6만석 돌파 경축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이 날은 음력 10월 3일로 개천절이었습니다. 학생독립운동의 불씨가 된 비밀 결사 성진회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천절에 남의 나라 명절과 경축행사를 치러야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서글픈 분노의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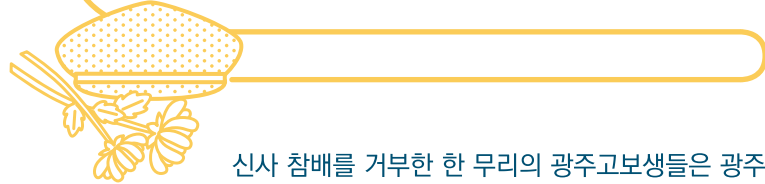
광주고보 학생들은 명치절 기념식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학생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 챈 학교도 단체로 하던 신사 참배 대신 개인의사에 맡기고 귀가하도록 합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합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보도한 최초의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9.11.6.

11월 3일,
그 날

18 11월 3일 첫 충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신사 참배를 거부한 한 무리의 광주고보생들은 광주일보사(현 전일빌딩 근처)로 몰려갑니다. 당시 일본인이 경영하던 광주일보는 일제 기관지였습니다. 10월 30일 나주역에서의 한·일 학생 간 충돌 사건도 한국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편파보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기사의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지만 거부당하자 운전기에 모래를 뿌려 광주일보를 응징합니다.

친일 편파 언론사 광주일보를 응징할 무렵, 신사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사이토 등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신사 앞 광주천변에서 광주고보 최쌍현에게 시비를 걸어 단도로 얼굴을 찌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철물점에 단도가 동이 날 정도로 일본인 학생들이 칼을 사 갔으며 그 칼로 한국인 학생들을 해치려 한다는 풍문이 나돌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인 학생이 광주고보 학생을 단도로 찔렀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오전 11시경, 최쌍현을 찔렀던 일본인 학생들과 광주고보 학생들이 충장로 5가에 위치한 수기옥정 우편국 앞에서 부딪쳐 시비가 벌어져 광주고보생들이 사이토 등을 구타합니다. 수세에 몰린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역(현 동부소방서) 쪽으로 도주하자, 광주고보생들은 이들을 추격합니다.

11월 3일,
그 날

19 광주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기옥정 우편국 앞에서의 충돌 직후 수십 명의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유도교사의 인솔 아래 야구방망이와 죽검 등으로 무장하고 광주역으로 몰려들어 도주하던 일본인 학생들과 합류하였습니다.

광주역에는 명치절 기념식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통학생 수십 명이 나주 등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통학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한 학생들은 광주고보 기숙사에 일본인 학생들의 기습 소식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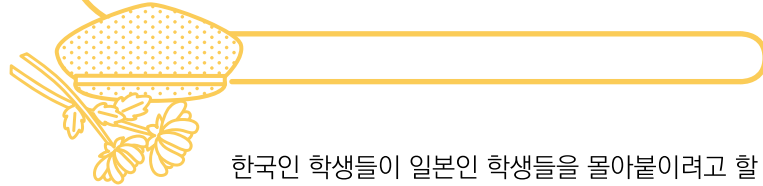
급보를 전해들은 기숙사생들은 몽둥이와 야구방망이, 학교 창고에서 꺼낸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함성을 지르며 광주역으로 뛰어옵니다. 광주농업학교 수십 명도 합세합니다. 일본인 학생들도 광주중학교에 연락해 백여 명의 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가지고 온 야구방망이와 농기구 등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난투극을 전개하여 광주역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쪽 학생 수는 각각 200여 명으로 비슷하였지만, 한국인 학생들의 사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참았던 분노와 울분이 일시에 폭발하여 결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일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주변에 몰려든 군중들도 큰 소리로 “왜놈을 죽여라”며 응원하여 한국 학생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합니다. 투석전과 육박전이 벌어지는 동안 광주여고보와 수피아여고 학생들은 돌을 치마에 담아 날라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붕대와 구급약품을 가져와 부상자들을 치료합니다.

마침내 일본인 학생들이 밀리면서 후퇴하자, 한국인 학생들은 더욱 기세가 올라 광주중학교로 가는 길목까지 일본인 학생들을 추격합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에게 밀려 토교(동문다리)에서 대치하자, 근처 관동여관 주인은 왜놈 학생들을 혼내라며 장작개비를 담 너머로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11월 3일,
그 날

19 광주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몰아붙이려고 할 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두 학교의 교사들도 현장으로 달려와 경찰과 함께 학생들의 해산을 설득합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끝까지 버티자, 양교의 교사들이 협상을 벌여 일본인 학생들이 먼저 퇴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물러날 즈음 독서회중앙부 총책임자 장재성이 “오늘 광주역에서 적과 싸운 것은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또한 대승리였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연설합니다. 장재성의 요청으로 광주고 보생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광주역에서 집단 싸움이 벌어진 지 1시간 정도 경과된 12시가 조금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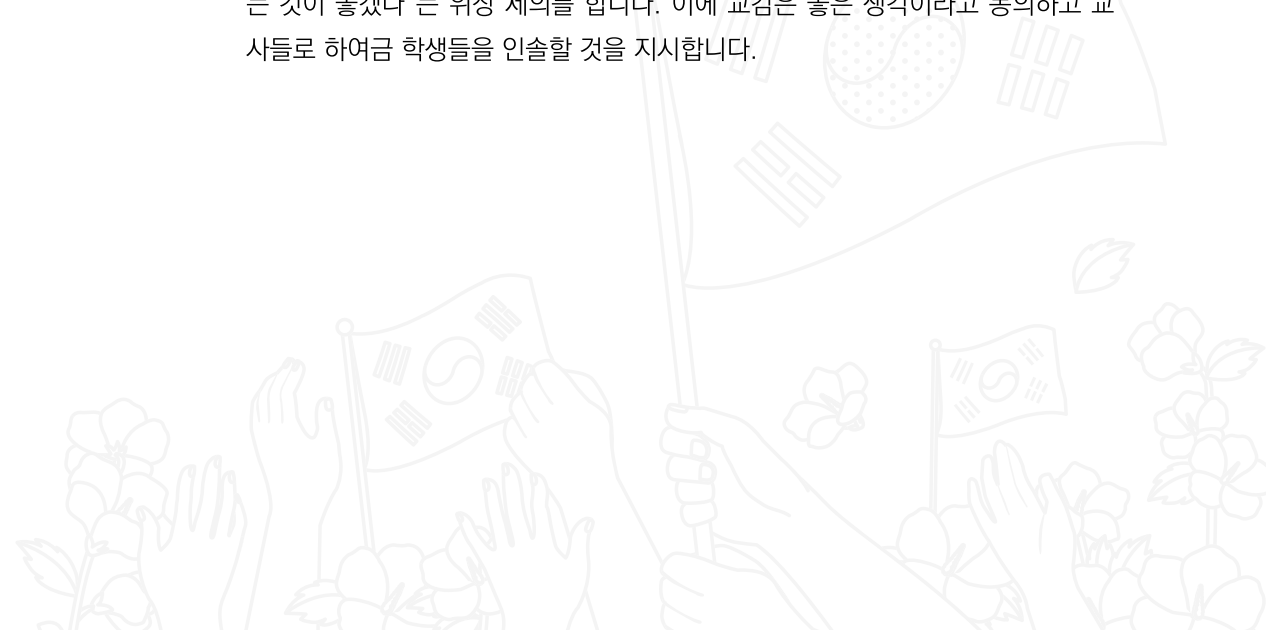
11월 3일,
그 날

20 '광주역 사건' 이후 학생들의 대책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강당에 모였습니다.

먼저 최쌍현 등 부상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은 충돌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였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때 오쾌일이 “오늘의 대승리를 신천지의 동포들에게 알리고 일제 타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의합니다. 함께 온 광주농업학교 5학년으로 당시 광주·나주 간 열차 통학단장이었던 최태주가 “광주고 보생만이 조선 학생이 아니요, 우리 광주농교생들도 한 피를 받은 동포이니 생사를 같이하여 시위 대열에 참가하겠다”고 제의하여 참석한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각, 졸업생인 장재성은 와타나베 교감을 만나 담판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재성은 교감에게 “오전의 불상사는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중학교에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을 그대로 나눠 귀가시키면 도중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니 전체 학생이 함께 나가 몇 개 지점에서 방면별로 귀가시키고, 마지막으로 열차통학생은 교사들이 광주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위장 제의를 합니다. 이에 교감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인솔할 것을 지시합니다.



11월 3일,
그 날

21 대책회의 이후 학생들의 시내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단체 귀가 허락이 떨어지자 300여 명의 학생들은 농기구실과 운동기구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팽이·목검·장작·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후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대로 돌변하자, 당황한 교감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류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시위 대열은 김향남·김보섭·김상환 등 기골이 장대한 상급생들이 앞장을 섰고, 하급생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교문밖에는 최태주의 연락을 받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로 환호하면서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교문을 나선 시위대는 행진가를 부르며 시내로 나아갔습니다.

신천지에 휘날리는 우리 동포야
길이길이 기다리던 오늘이 왔구나
무등산에서 단련한 기술로
용감히 적군을 물리치세

시위 행렬이 지날 때 시민들은 각목이나 장작을 나눠주며 환호하였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사다놓은 나무지팡이 10여 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호떡장사를 하던 아저씨는 호떡을 나누어주었으며 감 장수는 감을, 떡 장수는 떡을 나누어주며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시위대는 광주중학교 쪽으로 진출하다가 경찰이 막아서자 방향을 바꾸어 충장로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놀란 일본 상인들은 부랴부랴 문을 닫았고, 겁에 질린 일본인들은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시위대는 20여명의 경찰들이 지키고 있던 가가야 상점(현 충장로 3가에 위치) 앞 저지선을 돌파하고 도청에 이르자, 100여 명의 전남사범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무너 뜨리고 나와 합세합니다.

천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독립병원(현 전남대학교병원) 쪽으로 향합니다. 병원 앞 광장에서 100여 명의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장작과 각목 등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응하지 않자 검을 빼어들고 팔을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학생들은 ‘조선 독립’과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라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장작과 각목 등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광주 3·1운동의 태동지였던 양림동으로 향합니다. 경찰이 따라왔지만 개의치 않고 광주천변을 따라 내려가다 부동교(현 금교)를 건넵니다. 이곳에서 전남사범학교와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해산하고, 광주고보 학생들은 광주교를 지나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 때 시간이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이로써 11월 3일의 대시위가 막을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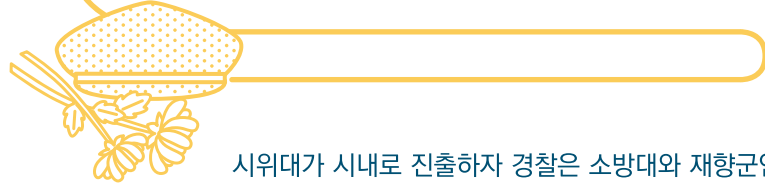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강당에 모이자, 와타나베 교감은 “오늘의 사태를 논하기 전에 이처럼 고조된 분위기에서는 수업을 해 보았자 효과가 없을 것이니, 흥분을 가라앉혀 평온을 되찾았을 때 공부하기로 하고 3일간 휴교한다. 사고 없이 귀가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교사들과 함께 퇴장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미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광주 시내에 집인 학생들은 각 방면별로 집단을 이루어 귀가하였으며, 열차 통학생들은 기숙사생과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같이 가 주었습니다.

시위가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6일, 당시 신문은 11월 3일의 시위를 3·1운동 이후 처음 보는 큰 사건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게 이날의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1월 3일,
그 날

22 학생들의 1차 시위에 대해 일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시위대가 시내로 진출하자 경찰은 소방대와 재향군인까지 동원하여 길을 가로막고 시위대를 저지합니다.

경찰들은 나중에 학생들을 검거하기 위해 입고 있는 교복에 흰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광주여고보 소녀회 학생들은 경찰 몰래 물수건으로 분필 자국을 지워버립니다.

대시위가 막을 내린 후, 그날 저녁부터 경찰은 전라도의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동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휴교는 9일까지 다시 3일간 연장되었습니다. 광주시내 곳곳에는 무장경찰이 배치되었고, 한국인 학생 4~5명만 모여 있어도 닥치는 대로 잡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11일까지 70여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이 중에는 최쌍현 등 중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은 7명이 체포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 한국 학생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즉시 도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반면,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학생 9명만이 개인 병원인 태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도립병원장은 광주경찰서 사법주임과 함께 태양의원에 나타나 학생들의 부상 부위를 보고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한국인 언론들도 연일 일제의 탄압과 불공평한 처사를 비난하였지만, 일제는 사건을 단순한 '내선 학생간의 충돌사건'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히 탄압하여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였습니다.

11월 3일,
그 날

23 1차 시위 이후, 사회 각 계층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학생들에 의해 점화된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와 청년단체들이 즉각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대표를 광주에 파견하였습니다.

11월 7일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청년학생회에서는 광주에 대표를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신간회에서도 11월 9일 대표단이 광주에 내려와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 교장으로로부터 진상을 듣고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에 항의하였습니다.

광주의 청년단체와 학생들도 시위를 민족운동 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1차 시위 직후인 11월 5일 경, 장재성은 신간회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 등 광주 사회·청년단체 간부인 장석천과 강석원 등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투쟁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생투쟁지도본부를 결성하고 광주 및 전국 학생의 지도는 장석천이, 광주의 학생 지도는 장재성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재성은 각 학교 독서회의 조직을 점검하고 광주고보·광주농업학교·전남사범학교의 대표들과 만나 2차 시위를 논의합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는 11일(월요일) 대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인 12일을 제2차 거사일로 결정합니다.

11월 11일, 장재성은 '조선민중이여 결기하라', '학생대중이여 결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용감히 싸워라 학생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 아래 결기하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있다', '용감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결기하라. 전사들이여 힘차게 싸워라. 힘 있는 데까지 싸워라'라는 4종의 격문을 작성하고 인쇄를 오패일에게 맡깁니다. 오패일은 소녀회 중심인물인 장매성이 흥학관에서 가져온 등사판을 이용하여 1,000여 장의 격문을 인쇄합니다.

1차 시위로 6일간 휴교(4일 월요일~9일 토요일)가 끝난 11월 11일, 무장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뚫었지만 광주고보의 경우 등교한 학생은 40여 명에 불과하였고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해산합니다.

11월 3일,
그 날

24 11월 12일, 2차 시위는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결전의 날인 12일 오전 8시경, 오래일은 인쇄한 격문을 광주교보와 광주농업학교 대표에게 나눠줍니다. 당시 배부된 격문 중 하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감하게 싸워라 학생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 아래 쫓기하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있다.

1. 투쟁의 희생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자!
1.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1. 교내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방지하라!
1. 수업료와 교우회비를 철폐하라!
1.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1.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1. 직원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자!
1.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1.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1.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1.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운명의 시간 오전 9시, 첫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광주교보생들은 “교우들이 구속되어 철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나가서 시위 하자”고 외치며 창고에 있는 농기구와 운동기구를 들고 일제히 교문을 나와 시내로 진출합니다. 같은 시간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철창에서 신음하는 교우를 구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300여 명의 광주교보생들의 목적지는 11월 3일 대시위로 학우들이 구속되어 있는 광주형무소(지금의 동명동에 위치)였습니다. 광주교보생들은 총장로의 우체국과 궁동을 거쳐 형무소를 향했습니다. 광주여고보에 이르러 시위 합류를 촉구합니다. 여고보생들이 교실을 뛰쳐나와 교문을 향했지만 경찰과 교직원의 방해로 합류하지 못하고, 구호를 외치며 동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동맹휴학으로 맞섰습니다.

광주교보와 농업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학우들이 구속되어 있는 광주형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규모의 경찰 병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대시위 이후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인근 지역의 경찰력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시위대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트럭까지 동원한 경찰의 무력에 밀려 강제 해산을 당하였습니다.



11월 3일,
그 날

25 학생들의 2차 시위에 대해 일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제2차 시위 직후 광주에 있는 한국인 중등학교에는 또 다시 휴교령이 내려지고 무자비한 탄압이 본격화됩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생 수가 500여 명이었는데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검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각 군의 사회·청년단체 간부들 160여 명도 광주에서의 대 시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잡혀 들어오자 삽시간에 경찰서 유치장은 초만원이 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경찰의 무도 훈련장이었던 도청 앞 무덕전에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비밀결사가 탄로나면서 성진회·독서회 등에 관련된 학생들이 다음 해 1월까지 계속 검거되었습니다. 심지어 오쾌일·유치오·임주홍 등은 동경에서 잡혀옵니다. 구속된 학생은 200여 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광주 지역의 중등학교 학생 수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탄압에 발맞춰 학교도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였습니다. 광주고보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광주농고는 시위에 참가한 100여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습니다. 광주여고보는 시위에 참가한 17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에 참여한 64명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사범학교는 문제 학생 37명을 일시 귀향시켰다가 이듬해 3월, 1명을 추가해 38명을 퇴학시켜 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제2차 시위 직후인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신문보도를 금지시켰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보도가 통제되자 오히려 갖가지 유언비어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 순사가 한국인 학생을 칼로 쳐 죽였느니, 폭동이 발생하여 광주가 쑥대밭이 되었느니 하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 학생들을 자극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학생독립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 인물은 장석천입니다. 완도 신지도에서 태어난 장석천(1903~1935)은 도쿄 상과대학 예과를 다니다가 4개월 만에 중퇴하고 귀향하여, 광주의 학생운동단체인 성진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신간회 광주지회에 가입하여 상무간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광주 및 전국 학생의 행동 지도를 담당하였고, 격문 약 2만장을 비밀리에 인쇄하여 전국에 발송하는 등 학생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최종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후에도 경성방직공장 종업원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판결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1933년 4월에 병보석으로 출옥하였으나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으로 1935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4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 26 광주 소식을 들은 목포와 나주 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호응하였나요?
- 27 전남의 다른 지역 학교의 참여는 어떠했나요?
- 28 서울의 1차 시위는 언제 일어났나요?
- 29 서울의 2차 시위는 여학생들이 주도하였다고요?
- 30 다른 지역의 참여 상황은 어떠했나요?
- 31 해외의 참여 상황은 어떠한가요?
- 32 11·3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26 광주 소식을 들은 목포와 나주 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호응하였나요?



광주 학생들의 대시위에 호응하여 가장 먼저 시위가 일어난 학교는 목포상업학교였습니다. 광주에서 독서회가 결성될 때 목포상업학교에서도 독서회가 결성되어 서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121명, 일본인 학생이 130명인 한·일 공학으로 민족 차별의 설움을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항일민족의식도 강하였습니다.

광주의 시위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11월 7일 비밀리에 모임을 갖습니다. 최창호·이인형은 11월 9일 광주에서 장재성을 만나 19일에 목포에서 시위를 감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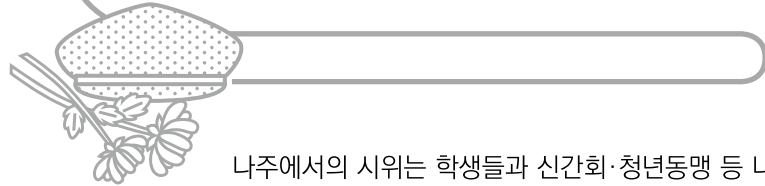
11월 19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이인형은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오후 1시 30분 경, 50여 명의 학생들이 정명여학교 앞에 모여 ‘피감금학생 즉시탈환’, ‘피압박민족 해방만세’ 등을 쓴 붉은 색 깃발을 앞세우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시위대는 목포역전까지 진출하지만, 출동한 100여 명의 경찰에 포위되어 40여 명이 체포됩니다. 학생들은 시위가 사전에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외부로 통하는 전화선을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인형 등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월 7일에는 목포 정명여학교에서 시위를 전개하려다 발각되어 9명이 잡혀갔고, 학교는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나주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나주역 사건이 도화선이었기 때문에 나주학생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예상하고 경찰은 경계를 엄중히 하여 사태를 막고자 하였지만, 학생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26 광주 소식을 들은 목포와 나주 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호응하였나요?



나주에서의 시위는 학생들과 신간회·청년동맹 등 나주지역 청년·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박준채로부터 광주에서의 시위에 대해 전해들은 농업보습학교 학생 유찬옥이 움직입니다.

유찬옥이 신간회 나주지회의 박공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이들은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공립보통학교 학생들과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11월 27일 시위를 시작합니다.

11월 27일 정오, 종소리를 신호로 나주공립보통학교 5·6학년 학생 130여 명과 농업보습학교 학생 50여 명이 합세하였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광주 학생 석방하라! 일제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천 명이 운집해 있던 나주시장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시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격문을 뿌리고 ‘조선 민중 만세’, ‘조선 학생 만세’ 등을 외쳤습니다. 이어 과원정 방면으로 우회하여 행진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50여 명이 체포되면서 해산됩니다. 이 사건으로 박공근·유찬옥 등은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27 전남의 다른 지역 학교의 참여는 어떠 했나요?

광주에서 타오른 항일의 불길은 먼저 인근 전남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일제의 보도통제로 타 지역은 떠도는 풍문으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전남 지역의 학생들은 오고가는 사람들에 의해 광주의 소식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와 나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여러 학교에서도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위 또는 맹휴투쟁이 벌어졌습니다. 11월 30일에는 송정리의 공민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다 9명이 잡혀가자 12월 2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함평농잠보습학교와 함평보통학교 학생들도 12월 12일 장날을 기해 시위를 준비하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4명이 구속됩니다. 이에 학생들은 동료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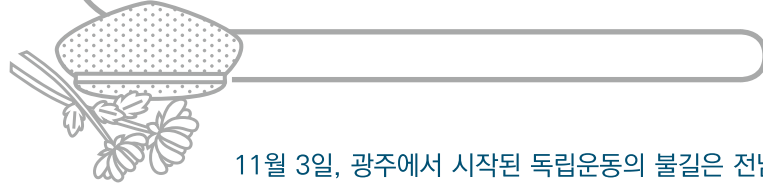
1930년 1월 18일, 강진 대구보통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광주 시위를 지지하는 격문을 뿌리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습니다. 19일에는 창평보통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격문을 뿌리고 만세시위를 계획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17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여수에서는 1월 23일 여수보통학교 학생들이 격문을 살포하였습니다. 1월 25일에는 여수수산학교 이용기 등 7명의 학생이 검거되자, 학교는 이를 빌미로 12명을 퇴학시키고 9명을 정학시켜버립니다. 학생들은 1월 28일, 퇴학·정학시킨 학생의 복교와 검거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담양보통학교 학생들이 조희시간에 만세를 부르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보성보통학교에서도 2월 18일 5·6학년 학생들이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모자로 광주고보 백지동맹 퇴학생이었던 김기수와 보통학교 학생 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2월 25일에는 순천농업보습학교에 1학년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습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28 서울의 1차 시위는 언제 일어났나요?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의 불길은 전남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확산의 결정적 계기는 12월 초부터 시작된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 시위였습니다.

광주에서 학생시위가 발발하자 11월 7일 중앙청년동맹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대표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신간회와 광주청년동맹의 간부였던 장석천·국채진 등을 만나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대표로 광주에 파견되었던 권유근은 경신학교 4학년생으로 조선학생전위동맹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중등학교·경성제일고보의 대표학생과 만나 서울 시내 중등학교 학생들의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각 학교별로 조직된 비밀 독서회 간부를 소집, 광주학생운동의 진상과 결과를 상세히 전달하는 등 항일시위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들은 “검속된 광주학생 동지를 즉각 탈환하라”, “식민지 노예교육을 반대하라” 등의 격문을 인쇄하여, 12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에 경성제대를 비롯, 경신학교·중등학교·중앙고보 등에 뿌립니다.

12월 5일에는 경성제이고보가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6일에는 중등학교도 시위와 함께 동맹휴학을 단행합니다. 7일에는 경성제일고보가 광주학생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맹휴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9일부터는 경신·보성고보·중앙고보·휘문고보 등 학생 2천여 명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12월 9일의 대시위는 1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지역에서만 1만 2천 여 명의 학생이 시위 및 동맹휴학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서울에서의 제1차 시위운동’이라 부릅니다. 이로 인해 1,400여 명이 체포되어, 45명이 구속되고 35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청년·학생운동 단체와 더불어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단체는 좌우합작의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허헌, 김병로 등을 광주에 보내 진상을 파악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광주학생운동진상보고회’ 개최를 준비합니다. 일제의 방해로 진상보고회가 좌절되자, 12월 13일 안국동 사거리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민중대회 역시 개최 6시간 전 신간회 본부가 포위되고 현장에서 대회준비를 하던 조병옥과 근우회·청년총연합회·노동총동맹 등 90여명이 검거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신간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29 서울의 2차 시위는 여학생들이 주도하였다구요?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총독부는 신간회·청년총동맹 등 사회단체 간부들을 대규모로 구속하고 12월 13일부터 조기방학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항일 투쟁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1930년 1월 초순, 휴교했던 학교들이 다시 개교하자 제2차 시위를 전개합니다.

서울에서의 제2차 시위는 제1차 시위 당시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근우회 등 여성 단체와 이화여고보 등 여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는 제1차 시위를 주도했던 남학생과 신간회 등 사회·청년단체의 상당수가 검거되면서 활동이 크게 위축된 반면, 여학생과 여성단체들의 역량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월 9일, 이화여고보 최복순은 근우회의 허정숙을 만나 제2차 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한 뒤 숙명여고보·배화여고보·정신여학교 등에 참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경성여자상업학교 송계월의 집에서 휘문고보·숙명여고보·동덕여고보 등 남녀학교 대표 16명이 모여 1월 15일로 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시위 관련 신문기사
“15일 대검거 이후에도 만세소리 그치지 않는다”

15일 오전, 서울시내 15개 학교 3,000여명의 학생들은 일제히 쫓겨납니다. 이화여고보는 10시경 첫 시간이 끝나자마자 300여 명이 교실을 뛰쳐나갔고, 근화여학교 전교생 300여 명도 교실 유리창을 깨고 운동장에 모여 교문을 막고 있는 경찰과 대치합니다. 같은 시각, 배화여고보·동덕여고보·정신여학교 학생들도 시내 진출을 꾀합니다.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적극 동참합니다. 배재고보·중동학교·휘문고보 학생들은 9시경 종이 울리자마자 교문을 박차고 나와 시내로 진출합니다. 그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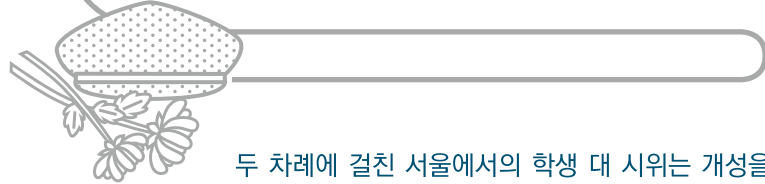
1월 15일 대시위는 3·1운동 이후 서울에서 전개된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일제는 1월 20일까지 임시휴교 조치를 내렸지만, 1월 18일까지 학생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제2차 시위로 3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근우회 간부 허정숙은 1년, 이화여고보 학생 최복순은 징역 8월을, 나머지 학생들은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30 다른 지역의 참여 상황은 어떠했나요?



두 차례에 걸친 서울에서의 학생 대 시위는 개성을 비롯하여 인천·원산·평양·함흥·부산·춘천·대구 등 전국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에서의 제2차 시위 이후 시행된 보도통제가 12월 28일 해제되면서 광주와 서울의 시위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 또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학생 시위가 처음 일어난 곳은 공주였습니다. 공주에서는 12월 2일 공주고보, 7일에는 영명남학교 그리고 13일에는 영명여학교 학생들이 맹휴를 단행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는 개성의 송도고보, 14일에는 개성상업학교, 16일에는 광성고보·평양여고보 등이, 17일에는 송실학교 등 평양 시내 중등학교 12개 중 9개교가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함흥에서는 12월 16일 함흥고보 등이, 20일과 21일에는 부산 동래고보 학생들이 광주학생의 무조건 석방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맹휴를 단행하였습니다.

학생시위가 조기방학으로 소강상태를 맞게 되지만 서울의 제2차 시위를 계기로 지방에서의 시위는 더욱 확대됩니다. 전국의 읍·면 단위 학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보통학교 즉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기생 권번의 기생견습생 200여 명도 수업을 거부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독립운동은 학내 문제 또는 광주학생사건·식민지 차별교육에 그치지 않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일본제국주의 자체를 타도하자는 단계, 그리고 국제정세까지 포함하여 보다 넓은 시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추진하자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투쟁 방법도 시험거부·백지동맹·동맹휴학·격문살포·교내시위·가두시위 등의 형태로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신간회·근우회 지회 등 사회단체와 연계 속에 시위가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31 해외의 참여 상황은 어떠한가요?

학생들의 항일시위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까지 확산됩니다. 그 가운데 북간도 지역의 호응이 제일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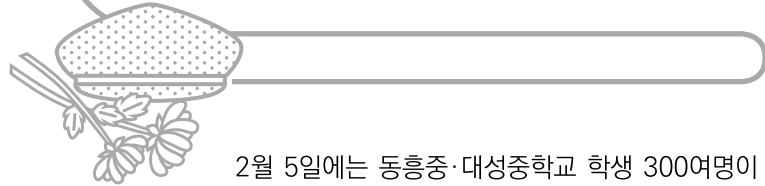
1930년 1월 28일, 용정의 은진학교·명신여학교 학생 200여 명이 백기를 흔들고 격문을 뿌리며 시내 시위를 전개합니다. 당시 배포된 격문을 보면, 광주학생에 대한 동정이 아닌 항일투쟁의 계기로 명확히 인식했으며, 11·3 학생독립운동 사건을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고양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선 절대 독립
- 학생만세, 식민지 동화교육을 타파하라.
검거학생을 무조건 석방하라.
- 광주사건은 민족적 불평등의 실증이다. 우리들은 사력을 다해 총독정치에 반항한다.
-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민족해방 조선독립의 순간이 도래했다.
- 광주학생사건을 전선에서 전만, 전 세계로 확대하여 조선독립의 전위전이 되게 하자.
- 지금의 광주학생사건은 3·1운동 이상의 좋은 기회를 조선 민족에게 주어 더욱 진전이 있다.

일어나라 일반 민중이여, 이 호기에.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31 해외의 참여 상황은 어떠한가요?



2월 5일에는 동흥중·대성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광주학생들에게 동정하자' 등의 문구를 쓴 격문을 뿌립니다. 용정의 학생 시위는 2월까지 지속되어 수십 명의 학생이 퇴학을 당합니다. 북간도 학생들의 시위는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로 방송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서간도의 신흥학교 학생들은 2월 7일에 만세를 불렀으며, 16일에는 구룡평학교 200여 명이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외에서의 학생 시위는 국내 시위가 잠잠해진 3월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간도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시위가 전개되지만, 상하이에서는 독립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광주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합니다. 1930년 1월 11일, 안창호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929년 12월 24일 2·8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도쿄 기독교청년회관에 200여 명이 모여 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을 하다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당합니다. 이밖에도 연해주나 미주 지역에서도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이 신문에 게재되고 시위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시작된 11·3 학생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파급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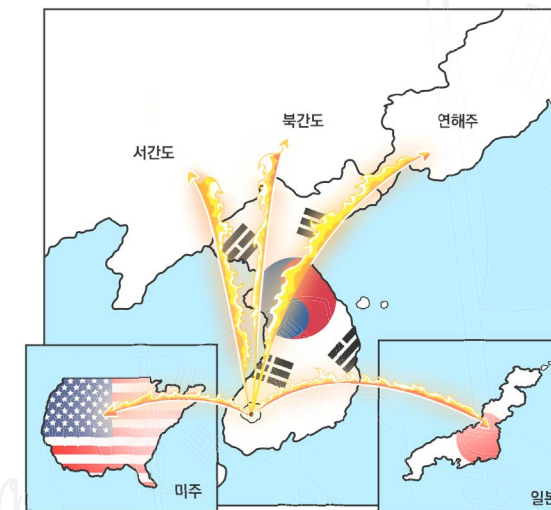
광주를 넘어
전국·해외로의
확산

32 11·3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11·3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54,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구속된 학생이 1,462명, 퇴학 및 무기정학은 2,912명이나 됩니다.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학생독립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학교는 32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장 극비문서(1930)에는 194개교로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나 연구에 등장하는 194개교는 바로 경무국이 제시한 학교 수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참가학교 수를 줄여서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41개교, 서울과 경기도 56개교, 충청남북도 23개교, 경상남북도 40개교, 강원도와 황해도 11개교, 평안도와 함경도 117개교, 간도 지역 32개교 등 총 320개 학교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경우 참가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지역별 참가 학교 수

각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41개교
서울과 경기도 56개교
충청남북도 23개교
경상남북도 40개교
강원도와 황해도 11개교
평안도와 함경도 117개교
간도 32개교 등
총 320개 학교



5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 33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 1) 보안법 재판
 - 2) 독서회와 소녀회 재판
 - 3) 성진회 재판
- 34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 35 학교에 남은 학생들의 투쟁 방식은 어떠했나요?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3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한 광주학생들의 기념사진
대구 달성공원

11·3 학생독립운동으로 광주에서 260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보안법 관련 49명, 성진회 관련 38명, 독서회 관련 90명, 소녀회 관련 11명 등 모두 173명(15명은 보안법과 독서회에 같이 걸림)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73명 가운데 단순 시위 주동자인 보안법 관련 49명은 사건 3개월 후인 1930년 1월 29일 예심이 종결되고, 성진회·독서회·소녀회 등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은 발발 9개월이 지난 1930년 7월에 예심이 종결됩니다.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3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1) 보안법 재판

1930년 2월 12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보안법과 관련한 ‘광주학생사건’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500~600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법원은 대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49명의 학생들은 3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얼굴이 여위었으나, 원기만은 왕성하여 재판장의 심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2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김병로 등 20여 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재판부와 변호인단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49명의 학생 가운데 김상환·김보섭 등 독서회 관련 학생 15명을 보안법과 치안유지법으로 나누어서 2차례 심리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 변호인단은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꺼번에 심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재판이 속개되자, 재판부의 강제심리에 반발한 권승렬 변호사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변호사의 직책을 다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이인 변호사는 의사 조주환, 광주고보 교감 와타나베, 송홍 선생, 신문기자 김용환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나 피고인 학생 측의 주장과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제히 피고 학생 모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인 격문 내용이 일본 정당의 선거표어보다 오히려 온건하기 때문에 출판법이나 보안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항남·조길룡 등 49명의 학생 전원에게 4월부터 8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을 받은 김항남·조길룡 등 16명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가운데 25명은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역시 1심 형량과 비슷하였습니다.

2) 독서회와 소녀회 재판

1930년 9월 29일 광주여고보 소녀회 관련 11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은 공안을 방해할 염려가 있음으로 방청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여, 피고의 가족들과 신문기자들마저 법정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10월 6일 판결에서 장매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박옥련·박계남 등 10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독서회 사건의 첫 공판은 검거된 지 만 1년인 1930년 10월 10일에 열렸습니다. 총 90명의 관련 학생 가운데 20명이 석방되고 김상환 등 70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환은 “우리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책을 읽었을 뿐이다. 공산주의를 선전 혹은 결사한 일이 없다. 재판장은 신경을 예민히 하지 말고 공정한 심리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들은 체도 아니하고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8일 판결에서 김상환·송동식·조길룡이 4년 등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중 금고 6월과 4월을 받은 16명은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풀려났으며, 50명은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3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3) 성진회 재판

전국에서 선구적인 학생 비밀결사였으며, 11·3 학생독립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진회 회원들은 그 비중이 겹맞게 제일 늦은 1930년 10월 20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작 20분 만에 재판장은 공개 금지를 선언하고, 장석천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7일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장재성에게 징역 7년, 왕재일에게 징역 4년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장재성은 “우리가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 조선사람 학생에 대하여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다”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성진회와 독서회 관련 인물들은 단순 시위 주동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북간도·서간도까지 파급되어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 된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에게까지 항일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학생독립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몰아가고 성진회·독서회를 공산주의 배후조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진회·독서회 관련 인물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두 사건은 관련 인물이 86명에 달하고 내용과 관련자가 중복된 경우가 많아 함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931년 4월 23일 첫 공판이 열린 뒤 6월 13일 판결이 날 때까지 7번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재성의 형량이 징역 7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고 김상환·김보섭 등은 징역 2년을, 장석천·왕재일 등은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최규창·문승수 등 74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4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옥중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학생들은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을 형무소에서 지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일제의 재판 지연과 고문·가혹 행위에 맞서 옥중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30년 1월, 성진회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강석원은 매서운 한파로 심한 감기와 복통은 앓았습니다. 강석원에게 일제는 약을 주기는커녕 일본인 간수는 약담까지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강석원은 양손에 수갑을 차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단식투쟁으로 해당 간수의 파직과 수감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고, 결국 형무소장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3·1절이 되자 수감 학생들은 각 감방의 벽을 두드리는 암호 연락으로 일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감방 안이었지만 항일의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7월 7일, 독서회 사건으로 수감된 김보섭이 이야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간수의 대검에 얼굴이 찢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노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죄수들까지 합세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대한독립 만세’, ‘동지들아 끝까지 싸우자’ 등을 외치며 항거합니다. 시민과 일반 학생들도 형무소까지 몰려와 ‘용감히 싸워라’, ‘학생들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합니다.

8월 1일, 성진회 사건으로 수감된 유치오가 피부병이 심해지자 방을 옮겨 줄 것과 치료를 요청합니다. 간수는 치료는커녕 유치오에게 심한 폭행을 가합니다. 이에 수감학생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비인간적인 형무소의 만행을 규탄하였습니다.

1931년 6월 재판이 일단락된 뒤에도, 학생들의 옥중투쟁은 계속됩니다. 1932년 4월 17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오쾌일 등 10여 명은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법정에서 추호도 굽힘이 없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옥중에서도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구호·단식 등으로 저항하였습니다.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5 학교에 남은 학생들의 투쟁 방식은 어떠했나요?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많은 학생과 사회단체 간부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학생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혀 들어간 학생들은 옥중 투쟁과 법정 투쟁을 벌였고, 남아 있는 학생들은 이듬해 1월 백지동맹 등을 일으켰습니다.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던 광주 지역의 각 학교는 1930년 1월 8일 개학합니다. 휴교 때문에 2학기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교는 개학 다음날부터 시험을 실시합니다. 광주고보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으로 맞섰고, 광주여고보도 3학년 전체가 백지동맹에 참여합니다. 이로 인해 광주고보에서는 17명이, 광주여고보는 15명이 또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의 퇴학처분에도 학생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 1월 광주고보생은 다시 3차 시위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면서 또 다시 48명이 무더기로 퇴학을 당합니다. 당시 광주고보는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생이 4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졸업한 학생은 160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학생들의 뜻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아마도 암담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사회과학 연구 그리고 유학생 선배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고보의 경우 한문과 조선어를 가르쳤던 송홍 선생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송홍 선생(1872~1949)은 한말의 이름난 유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늘 한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몰래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세계정세와 민족의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자 학생들을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그는 1930년 2월 19일 제자들이 두 번째 공판 받는 날 '자연으로 돌아가며 학생 제군에게 주는 글'이라는 시 한수를 남기고 학교를 사직하였습니다.



송홍선생 동상
광주제일고등학교

〈자연으로 돌아가며 학생 제군에게 주는 글〉

나는 일찍이 교육을 하면서 혁신을 외쳐왔건만
오늘 아침 제군들과 이별을 이야기하네
이십 이년 봄을 한마음으로 행해 왔기에
강호의 늙은 병자는 부담이 없네

6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 36 1940년대 일어난 '무등회 사건'은 무엇인가요?
- 1) 제1차 무등회 사건

2) 제2차 무등회 사건
- 37 11·3 학생독립운동은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38 11·3 학생독립운동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 39 11·3 학생독립운동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40 11·3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 1) 광주고보(광주제일고등학교)

2) 광주여고보(전남여자고등학교)

3) 광주농업학교(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4) 전남사범학교(광주교육대학교)

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탐

6) 옛 광주역과 토교(동문다리)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6 1940년대 일어난 '무등회 사건'은
무엇인가요?



1) 제1차 무등회 사건

광주고보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독립운동은 1940년대에도 계속됩니다.
1940년대 광주서공립중학교 학생들에게 계승되는데, '제2차 11·3 학생독립운동'이라 불리는 '무등회 사건'이 그것입니다.
광주고보가 광주서공립중학교로 명칭이 바뀐 해인 1938년 5월 기환도·나금주 등이 독서회를 조직합니다. 1939년 5월 결성된 '무등회'는 이 독서회를 계승하였습니다. '무등'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목표를 정하였습니다.

- '서중훈'으로 무장하고 영웅적인 선배들의 얼을 전교 학생들에게 심어줄 것

- 일제식민지정책 반대투쟁에 젊음을 바칠 것

- 주체성을 기르기 위해 독서운동을 전개할 것

- 동지를 위해, 보안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길 것

1941년 12월, 무등회 회원이던 유몽룡이 매주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장에 일제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가 문제가 되어 퇴학당하였지만 조직은 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담양의 무정보통학교에 근무하던 주만우가 조선인 동료 교직원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다 일본인 교사의 밀고로 검거되면서 조직이 드러나게 됩니다. 1942년 1월 주만우를 비롯한 유몽룡·강한수·남정준·윤봉현·윤재춘·김동수 등이 구속되고, 만주로 도피한 기원흥도 잡혀왔습니다. 유몽룡은 징역 1년 6월, 주만우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를 '제1차 무등회 사건'이라 부릅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6 1940년대 일어난 '무등회 사건'은 무엇인가요?

2) 제2차 무등회 사건

1942년 5월 신균우·기영도 등 20여 명이 '무등회'를 재건합니다.

이들은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까지 구상하였는데, 이는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기영도의 다음 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일제는 동양의 적이요, 무력은 우세 하지만 군수물자와 과학력 면에서는 도저히 미·영·소에 대항할 수 없다. 장기전이 되면 일제의 패배는 필연적이며 그 때야말로 조선독립의 절호의 시기다. 만일에 일제가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때에는 일제가 피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동족이 일제히 쫓겨나면 용이하게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요. 독립할 때에는 전조선 각 중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과 다소의 군사교련을 받은 자를 동원한다면 대략 35~36만의 병력을 얻을 수 있어 최소한도의 군사력은 가능하다.”

회원들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식민지 차별정책을 학교 내에서 부각시키며 싸워 나갔습니다.

4학년 신삼용은 내선일체 교육에 광분하던 에노모도 교장의 얼굴을 독사로 그리고 “조선어를 상용하자” 라고 써서 변소와 창고 등의 구석진 곳에 붙여 놓았다가 퇴학당하였습니다. 조병대는 봉안전에 있었던 일본 국왕부부의 사진액자에 지령이를 집어넣어 기어 다니게 하고, 차별을 일삼는 일본 교사의 책상 서랍 속에 인분 봉투를 집어넣어 민족차별에 항거하였습니다.

무등회 회원들의 항일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생들 사이에 친일 분위기가 성행합니다. 이에 1943년 4월, 신균우·배종국 등 무등회 회원들이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하급생들의 교실을 순회하면서 항일운동의 필요성과 조선어 사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급생 중 한명이 밀고하여 주동자 몇 사람이 교장실로

- | | |
|------------|------------|
| 1. 일어사용 반대 | 2. 창씨개명 반대 |
| 3. 내선일체 반대 | 4. 일본상품 불매 |
| 5. 차별교육 반대 | 6. 조선독립 만세 |

불러가 심한 옥설과 체벌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밀고 혐의가 있는 하급생 7~8명을 학교 무도장 뒤에 집합시켜 놓고 체벌을 가합니다. 경찰이 나서 주모자를 검거하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습니다.

동맹휴학이 일어난 지 며칠 뒤 광주사범학교에서 열린 '전남도내 모형비행기대회'를 관람한 일부 서중학생들이 일본학생들을 구타합니다. 이를 계기로 검거선봉이 불었고, 그해 8월까지 350여 명이 잡혀갑니다.

일제는 다음 해인 1944년 2월까지 장기간 조사를 하면서 30여 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기영도와 신균우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남정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제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모두에게 악독한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기환도는 수갑을 채운 채 심야에 경양방죽으로 끌려가 물속에 쳐 놓여져 발길질로 채이며 고문을 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강한수와 윤봉현도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받기 전에 사망합니다. 주만우는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고문치사를 병사로 조작하여 허위보고하는 뽀뽀스러움을 보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방이 돼서야 풀려나왔습니다. 이것이 '제2차 무등회 사건'입니다.

제2차 11·3 학생독립운동이라 불린 '제2차 무등회 사건'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이 학생들에게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7 11·3 학생독립운동은 이후 민족·민주화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1·3 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한동안 194개교였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자료를 그대로 교과서에 실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광주광역시교 육청의 조사 결과 320개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학생독립운동기초자료 발굴팀에 의 해 350여개의 조선인 관련 학교가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 시아, 미국 등 해외를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1·3 학생독립운 동은 학생이 주축이었지만 각종 청년단체, 노동단체, 신간회, 해외 독립운동단체들 도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으로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1,462명이었습니 다. 광주 지역에서만 173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장재성은 4년, 김상환·송동식·조길룡은 2년, 왕재일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은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은 모두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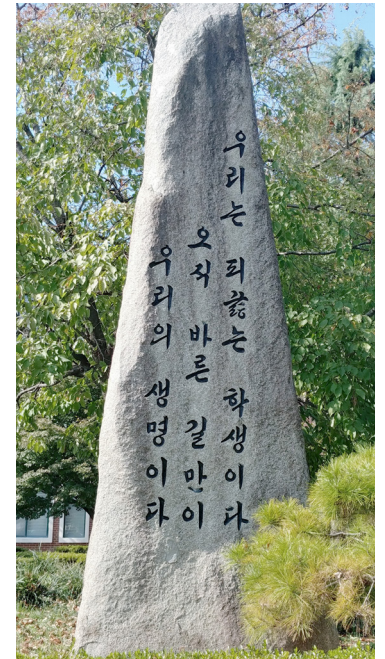
1929년 11월 광주고보생들의 항일투쟁은 10여년 뒤 광주고보를 이은 광주서공 립중학교(광주서중) 학생들이 이어갑니다. '무등회 사건'이 그것입니다.

해방 후 광주고보생들의 항일독립운동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시대정신으로 구현됩니다. 1972년 유신헌법과 박정희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학생들이 바로 광주고보와 광주서중을 계승한 광주일고 학생들이었습니다. 1974년 10월 교내 시위에 이어 11월 15일에는 총장로, 도청으로 진출하여 '유신 철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975년 5월 1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세 번째 유신반대 시위를 기획하였지만 사전에 누설되어 3명이 구속되고 16명이 제적되었습니다.

박정희 독재에 맞서 광주일고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은 '광랑'과 '피닉스'라는 학생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성진회·독서회, 1940년대 제 2차 학생독립운동과 무등회처럼 1970년대 반독재시위에는 광랑과 피닉스가 있었 습니다.

광주고보생들의 정신은 1940년대 무등회 와 1970년대 광랑·피닉스 등 비밀조직을 통해 계승되었고, 광랑과 피닉스 회원들은 1980년대 5·18민주항쟁 및 6월 항쟁을 이 끈 민족·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이 되기도 하였 습니다.

퇴학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에 맞 서 싸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은 불의를 용납 하지 않은 '정의로움'입니다. 거기에 민족혼 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서중훈'이 되고 '이어라 전통'의 '일고훈'이 되어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새겨진 글귀
광주제일고등학교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8 11·3 학생독립운동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2019년은 11·3 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한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독립유공자는 모두 427명으로(2018년 8월 기준) 건국훈장 246명, 건국포장 56명, 대통령 표창 125명입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공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해서 4년을 선고받은 장재성도 그 중 한 분입니다. 장재성은 성진회의 창립 회원이었고, 독서회중앙부 총 책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11·3 학생독립운동의 최고 리더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3·1절을 앞두고 김구 주석, 안중근 의사 등 208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표창을 합니다. 명단에 장재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해방 후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서훈을 취소해 버립니다. 이 내용이 당시 동아일보(1962년 3월 1일자)에 '장재성씨 수훈 취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장재성은 해방정국에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조직부장,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 전남대표 등을 지냅니다. 그는 분단에 반대해 세 차례에 걸쳐 남과 북을 오가다 1948년 검거돼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6·25전쟁이 일어나 인민군이 광주에 들어오기 직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총살당하고 맙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기흥도 그 중 한 분입니다. 이기흥은 광주고보 2년 재학 중 학생독립운동에 참가했습니다. 1930년 초 당시 반장으로 백지동맹을 주도하다가 퇴학을 당하자, 고향에 내려가 독립운

동과 농민운동에 투신합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사회운동에 실천적으로 참여하였고, 12년 6개월간이나 투옥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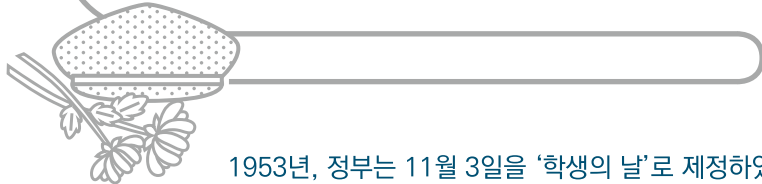
장재성과 이기흥 선생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당시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의 한 방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남북이 분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일로 전향하지 않았다면, 1945년 이전 독립운동 자체만으로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한 전국 320개 가운데 현재 북한에 있는 학교가 133개교나 됩니다. 항일 독립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90주년 행사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100주년에는 남북이 함께 공동행사를 치르고 공동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39 11·3 학생독립운동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1953년, 정부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만인 1973년 ‘학생의 날’이 폐지되었고, 1984년 다시 부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면서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11·3 학생독립운동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나주에서는 ‘나주학생독립운동’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광주학생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국가기념일 명칭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교과서의 명칭 ‘광주학생항일운동’이나 광주에서 사용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를 앞에 붙인 이름으로 ‘광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중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전국적인 학생운동이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 발발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해외까지 전개된 시위 운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 사회단체가 연계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주라는 지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학생운동이었음을 알려주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11·3 학생독립운동’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3·1 운동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서울독립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3년 전에 일어났던 6·10 만세운동 역시 6·10 만세운동으로 부릅니다. 4·19혁명도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지역 명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1·3 학생독립운동’이라 불러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월 3일 학생시위가 일어난 곳은 광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40 11·3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11·3 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여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불씨는 1929년 11월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전남도립사범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에 의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광주의 학생들은 일제에 맞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도심 곳곳은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입니다.

11월 3일 첫 총돌이 일어난 수기옥정 우편소 주변과 광주역,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이 다니던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대치했던 토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회중앙부 회원들이 독서모임과 토론장소로 자주 이용했던 김기권 문방구점과 장재성 빵집(현 금남로공원)이 있던 곳도 중요한 역사 현장입니다. 그러나 역사 현장 대부분이 지금은 ‘터’만 남아 있거나 빌딩이나 공원이 들어서 있어 사적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중심 학교 중 광주고등보통학교는 광주제일고, 광주농업학교는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는 전남여고, 전남사범학교는 광주교육대학교로 계승되었습니다. 당시의 주역들이 다녔던 학교들은 그날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40 11·3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1) 광주교보(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고등보통학교는 1920년 광주 지역 유지들에 의해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가 공립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929년 당시 학생 수는 500여 명, 교원은 25명이었습니다. 그 중 일본인 교원이 23명이나 되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장재성도, 나주역 사건의 박준채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1929년 11월 3일의 1차 시위뿐만 아니라 11월 12일의 2차 시위에도 전교생이 참가하였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끌던 중심학교였던 만큼, 광주제일고등학교에는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1954년에 세워진 이 탑에는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시 본관 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어, 11·3 학생독립운동의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광주여교보(전남여자고등학교)

1927년 4월에 설립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는 비밀 독서모임인 소녀회가 결성되어,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항일의식을 키워갔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 집단 충돌이 일어났을 때, 광주여교보 학생들은 돌과 음료수 등을 남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응원했습니다. 이후 광주도립병원 앞으로 행진하며 거리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1930년 1월에 치러진 학기말 시험 때에는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백지동맹에 참여하며 일제에게 저항했습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정에는 1928년 3월에 신축된 건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문 왼편에는 1959년에 11월 3일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배달 여자의 전통적 덕행을 이어 맨손으로 왜정의 총칼에 항거하여 독립의 한길을 닦은 여학도의 절의는 곧 해의 거울이요 잘 사람의 본이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유명한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입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40 11·3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3) 광주농업학교(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909년 도립광주농림학교로 임동에서 개교한 광주농업학교는 1911년 광주공립농업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은 1929년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동맹휴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929년 11월 3일 한·일 학생 간의 광주역 충돌 이후 거리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시위에 참여하며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였습니다. 11월 12일 2차 시위에서도 일제에 맞서 투쟁하였습니다.

광주농업학교는 1976년에 학교 위치를 개교 이래 있던 임동에서 현재 위치인 북구 오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학교 명칭도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교정에는 11·3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선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탑’이 세워져 있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 전남사범학교(광주교육대학교)

전남사범학교는 교원 양성을 위해 1923년에 서석동에서 개교했는데, 그곳은 지금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사범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1929년 7월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항일 의식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항일의식을 바탕으로, 1929년 11월 3일에 전개된 거리 시위에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 반대와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11월 12일에 발생한 2차 시위에도 동참하여 일제 식민지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방비로 운영되던 전남도립사범학교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1931년 3월에 폐교되었다가 1938년 광주사범학교로 계승됩니다. 이후 다시 광주교육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2008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세워 자랑스러운 전남도립사범학교 선배들이 이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40 11·3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기념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1967년 동구 황금동에 설립하였다가 서구 화정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햇불을 상징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도 세워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어, 11·3 학생독립운동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가족의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11·3 학생독립운동을 아십니까?’를 통해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담긴 의미를 알고,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프로그램 ‘청소년 생생 역사체험교실’, 청소년들과 독립운동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일역사탐방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옛 광주역과 토교(동문다리)

옛 광주역은 1929년 11월 3일 오전 11시경 한·일 학생 간의 대규모 집단 충돌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운암역 사건을 비롯하여 한·일 학생 간의 사소한 충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광주역 광장에서는 광주고보 학생들과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의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소방서 앞 인도에는 이곳이 광주역이었음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토교(土橋)는 대인시장 동문 입구에 있었던 다리, 즉 동문다리를 말합니다.

현재 대인시장 동문 쪽으로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인시장 입구에 이곳이 동문다리였음을 알리는 ‘동문다리 입구’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의 현장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록.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명단

1. 전라남북도·제주도 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강진공립보통학교	강진중앙초등학교	동맹휴학
2	강진대구공립보통학교	강진대구초등학교	동맹휴학, 시위
3	고부공립보통학교	고부초등학교	시위계획
4	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	고창고등학교	집단시위, 휴교
5	곡성공립보통학교	곡성중앙초등학교	격문살포
6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맹휴본부 설치, 시위, 독서회, 백지답안 제출
7	광주공립농업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맹휴투쟁, 시위, 독서회, 집단퇴교
8	전남도립사범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독서회, 시위
9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백지동맹, 시위, 동맹휴학, 집단퇴교
10	광주사립수피아여자학교	수피아여자고등학교	만세시위, 휴교
11	광주송일학교	송일고등학교	시위
12	광주청년학원흥학관	폐교	시위
13	나주공립농업보습학교	폐교	맹휴투쟁, 시위
14	나주공립보통학교	나주초등학교	격문 살포, 집단만세시위
15	남원공립보통학교	남원용성초등학교	격문살포
16	담양공립보통학교	담양동초등학교	동맹휴학 시도
17	담양창평공립보통학교	창평초등학교	격문시위, 시위계획
18	목포공립상업학교	목상고등학교	석방시위, 집단시위
19	목포사립정명여자학교	정명여자중학교	집단시위계획
20	백산공립보통학교	부안백산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21	보성공립보통학교	보성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22	삼례공립보통학교	삼폐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23	송정리사립국민학교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	동요, 임시휴교
24	순천농업보습학교	순천남초등학교	동맹휴학
25	여수공립보통학교	여수서초등학교	격문살포
26	여수공립수산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집단시위
27	옥과공립보통학교	옥과초등학교	만세시위계획
28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전주고등학교	동요, 시위참가자 검거
29	전주공립공업보습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시위계획, 격문살포, 만세시위
30	전주공립농업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집단시위계획
31	전주공립소학교	전주초등학교	동맹휴학계획

32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구한국기로 만세시위, 불온가 합창
33	전주사립기전여학교	기전여자고등학교	만세시위
34	전주사립신흥학교	신흥고등학교	학생동요, 임시휴교, 집단시위
35	전주사립영신학교	삼례중앙초등학교	만세시위
36	전주사립호영학교	폐교	동요, 임시휴교, 격문살포
37	정읍공립고등보통학교	정읍동초등학교	동요
38	정읍공립농업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집단시위, 검거학생 석방 진정서 제출
39	제주도민공립농업학교	제주고등학교	백지답안제출
40	줄포공립보통학교	줄포초등학교	불온통신문 발송
41	함평공립농잠실수학교	함평중학교	장날시위계획 사전발각(3명 구속), 동맹휴학

2. 서울·경기도 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개성공립고등상업학교	인천고등학교	맹휴계획
2	개성공립상공학교		맹휴계획
3	개성공립상업학교		진정서 제출, 집단퇴교, 맹휴계획
4	개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맹휴
5	개성사립고등보통학교		시위, 휴교
6	개성사립미리흥여학교		집단퇴교, 만세시위
7	개성사립송도고등보통학교	인천송도고등학교	동요, 집단시위, 집단퇴교, 휴교
8	개성사립송도상업학교		학생동요, 임시휴교
9	개성사립학당상업학교		동요, 맹휴
10	개성사립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대전호수돈여자고등학교	집단만세시위, 임시휴교
11	경성공립공업전수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동요
12	경성공립농업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내소요
13	경성공립법학전문학교	서울대학교	맹휴계획
14	경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교내소요
15	경성공립제이고등보통학교	경북고등학교	시위계획, 맹휴, 집단퇴교
16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	경기고등학교	만세교창, 맹휴, 격문살포
17	경성사립경신학교	경신고등학교	집단시위, 맹휴, 격문살포, 선언서 작성
18	경성사립근일상전문학교		소요, 임시휴교
19	경성사립근화여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소요, 임시휴교
20	경성사립기독교청년회학당	성동고등학교	집단만세시위
21	경성사립남대문상업학교	서울동성고등학교	교정시위, 휴교, 가두시위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22	경성사립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만세시위, 집단퇴교, 격문살포, 휴교
23	경성사립배재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학교	혈서, 만세시위, 교내시위
24	경성사립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배화여자고등학교	집단시위, 휴교
25	경성사립법정학교	서울대학교	임시휴교
26	경성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학교	만세고창, 집단시위, 시험거부, 맹휴
27	경성사립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	집단시위, 맹휴
28	경성사립불교전수학교	동국대학교	맹휴
29	경성사립선린상업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집단시위
30	경성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집단퇴교, 집단시위, 임시휴교
31	경성사립송문고등보통학교	송문고등학교	집단맹휴
32	경성사립실업전수학교	한성고등학교	수업거부, 집단시위
33	경성사립실천여학교	상명여자중학교	집단시위, 집단퇴교
34	경성사립양정고등보통학교	양정고등학교	가두시위, 교내시위
35	경성사립여자미술학교		맹휴, 집단시위
36	경성사립여자상업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내소요, 격문살포, 집단시위, 백지답안
37	경성사립여자중앙보육학교	중앙대학교	집단만세시위
38	경성사립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집단시위, 맹휴
39	경성사립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구한국기로 만세시위
40	경성사립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요, 학교출석거부
41	경성사립전기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만세시위
42	경성사립정신여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집단시위, 격문살포, 임시휴교
43	경성사립중동학교	중동고등학교	만세시위, 맹휴, 집단퇴교, 백지답안, 격문살포
44	경성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학교	시위, 맹휴, 격문살포
45	경성사립중앙기독청년학교	성동고등학교	수업거부
46	경성사립중앙보육학교	중앙대학교	맹휴
47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집단만세시위
48	경성사립태화여학관		집단시위, 휴교
49	경성사립양상여자기예학교	동명여자고등학교	집단시위
50	경성사립협성실업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집단시가행진, 맹휴
51	경성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학교	맹휴, 격문살포, 집단시위, 백지답안, 구속자 석방 진정서 제출
52	경성제국대학(예과)	서울대학교	격문살포
53	기흥공립보통학교	신갈초등학교	시위계획
54	동대문고학당		맹휴
55	마석공립보통학교	남양주마석초등학교	집단시위 계획
56	인천공립북상업학교	인천고등학교	집단시위

3. 충청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공주고등학교	맹휴
2	공주금성보통학교	폐교	맹휴계획
3	공주영명여학교	영명고등학교	맹휴
4	괴산공립보통학교	명덕초등학교	격문살포
5	논산공립보통학교	논산부창초등학교	시위계획
6	대소원공립보통학교	대소원초등학교	집단만세시위
7	대전공립상업보습학교	폐교	집단퇴교
8	대전제2공립보통학교	대전신흥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9	무극공립보통학교	무극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10	부여공립농업보습학교	부여초등학교	격문살포
11	석문공립보통학교	석문초등학교	격문살포
12	산창공립농업보습학교	온양고등학교	맹휴계획
13	신창공립보통학교	아산신창초등학교	맹휴계획
14	예산공립농업학교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격문살포
15	예산대흥공립보통학교	대흥초등학교	부분시위
16	음성공립보통학교	수봉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17	조치원농업보습학교	조치원고등학교	동요, 사전발각
18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청주고등학교	집단만세시위
19	청주공립고등여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동요
20	청주공립농업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집단시위
21	청천공립보통학교	청천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22	충주공립보통학교	교현초등학교	맹휴계획
23	홍성공립공업전문학교	한밭대학교	맹휴계획

4. 경상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고성공립보통학교	고성초등학교	동요
2	김해공립농업학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집단시위, 격문살포
3	김해공립보통학교	김해동광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4	김해합성학교	김해합성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5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경북고등학교	격문사전발각, 집단시위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학생독립운동

6	대공공립농림학교	대구자업과학고등학교	격문사전발각
7	대구공립사범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집단시위계획
8	대구공립상업학교	상원고등학교	집단시위
9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격문사전발각, 성명서 발표
10	대구사립계성학교	계성고등학교	사전발각
11	대구사립교남학교	대륜고등학교	집단시위
12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동래고등학교	검거학생석방요구, 집단퇴교, 집단시위
13	마산공립상업학교	웅마고등학교	맹휴 및 구속자 석방 시위계획
14	마산호신학교	창신고등학교	집단동요
15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	동정맹휴계획
16	부산공립제2상업학교	개성고등학교	격문살포, 집단퇴교, 맹휴
17	부산사립상업실천학교	동주여상고	집단퇴교, 진정서제출, 맹휴
18	부산진보통학교	부산진초등학교	동요
19	사천공립보통학교	사천초등학교	집단시위계획
20	삼천포공립보통학교	삼천포초등학교	동요
21	양산원동공립보통학교	원동초등학교	비밀회합, 동요
22	영산보통학교	영산초등학교	시위계획 사전발각
23	영주공립보통학교	영주초등학교	격문살포
24	원동공립보통학교	원동초등학교	동요
25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진주고등학교	만세시위
26	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진주여자중학교	만세시위
27	진주농업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시위사전발각
28	진주사립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	집단퇴교, 집단시위
29	진주사립제일고등보통학교	폐교	집단퇴교
30	진주제일공립보통학교	진주중앙초등학교	만세시위
31	진해공립농업학교	폐교	격문살포
32	진해공립보통학교	경화초등학교	집단시위
33	창원보통학교	창원초등학교	시위계획 사전발각
34	칠원공립보통학교	칠원초등학교	동요
35	통영공립보통학교	통영초등학교	집단시위
36	통영공립수산학교	경상대통영캠퍼스	만세시위, 집단퇴교
37	풍기공립보통학교	풍기초등학교	격문살포
38	하동공립농업보습학교	진교종합고등학교	시위
39	하동공립보통학교	하동초등학교	시위
40	함안공립보통학교	함안초등학교	동요

5. 강원·황해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강릉공립농업학교	강릉농공고등학교	전화선 절단, 시위계획, 비밀결사 독서회 조직
2	사리원사립농업학교		집단시위, 비밀결사 조직
3	안악사립명신학교		격문살포
4	용호도공립수산보습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맹휴시도
5	원주공립보통학교	원주초등학교	동요조직
6	자북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7	장연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계획
8	철원공립보통학교	철원초등학교	동요, 만세시위계획
9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춘천고등학교	백지답안, 집단퇴교, 집단시위
10	춘천공립농업학교	춘천농공고등학교	집단시위
11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		집단시위

6. 평안·함경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가동공립보통학교	인천고등학교	시위계획
2	강남공립농업보습학교		집단퇴교
3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		격문살포, 집단시위
4	경성공립농업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격문살포, 집단시위
5	고성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6	광량만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
7	광천공립보통학교	인천송도고등학교	만세시위, 맹휴
8	길주농업학교		맹휴
9	나남중학교		맹휴
10	능성공립보통학교	대전호수돈여자고등학교	만세시위
11	단천공립농업보습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집단시위계획
12	덕산공립보통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집단시위계획
13	동해공립보통학교	서울대학교	시위계획
14	등산유치원	경기여자고등학교	시위
15	만성공립보통학교	경북고등학교	집단시위계획
16	맹산공립보통학교	경기고등학교	만세시위계획, 격문살포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17	맹산사립인화학교	집단시위계획
18	명간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19	명륜여자보통학교	시위
20	박천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21	봉산보통학교	사전발각
22	부호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23	북원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24	북창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25	북청공립농업학교	동요
26	북청사설대성학술강습소	동요
27	삭주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28	삼화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29	선천사립보성학교	동요
30	선천사립신성중학교	만세시위
31	성진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32	성진임명공립보통학교	시위
33	성천농림학교	시위계획
34	소림공립보통학교	집단만세시위
35	수구사립배신학교	맹휴
36	송덕중학교	시위
37	송실여학교	맹휴
38	신상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 비밀결사 조직
39	신성여학교	시위
40	신의주공립고등보통학교	집단퇴교, 맹휴
41	신의주농업학교	사전발각
42	어대진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만세시위
43	어랑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 교과서 미소지 시위, 집단시위
44	영변공립농업학교	시위계획, 만세시위
45	영변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
46	영변사립보성학교	집단시위
47	영변해림공립보통학교	시위
48	영생고등보통학교	시위
49	영생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
50	영흥사립공명학교	집단시위계획
51	오산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
52	오산사립고등보통학교	서울오산고등학교
		집단시위

53	용강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54	운전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계획
55	웅기공립보통학교	격문살포, 시위계획
56	원산고등여학교	맹휴
57	원산공립상업학교	백지동맹
58	원산사립누씨여자고등보통학교	만세시위
59	원산사립진성여학교	만세시위 시도
60	원산사립청년학관	만세시위
61	원산사립해성보통학교	만세시위 시도
62	의주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63	이원공립보통학교	격문살포
64	이천고등보통학교	격문살포
65	인흥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66	입석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67	자산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68	주남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 집단시위
69	주남사립삼향학교	집단시위
70	주북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계획, 집단시위
71	주율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비밀모의, 만세시위
72	진남포공립상공학교	격문살포, 집단시위
73	진야동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74	차호공립보통학교	격문살포
75	청진고등보통학교	집단시위
76	청진공립고등여학교	격문살포
77	청진공립상업보습학교	집단시위
78	청진청부학원	휴학
79	초원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
80	태천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계획
81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	격문살포
82	평양공립농업학교	백지답안 제출, 만세시위
83	평양공립사범학교	격문살포
84	평양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맹휴
85	평양남산공립보통학교	동요
86	평양남산공립여자보통학교	만세시위
87	평양사립경의여학교	집단시위
88	평양사립광성고등보통학교	서울광성고등학교
		격문살포, 만세시위, 맹휴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89	평양사립광성보통학교		휴교, 집단시위
90	평양사립대성고등보통학교		백지답안 제출, 집단퇴교
91	평양사립송덕여학교		만세시위
92	평양사립송덕학교		만세시위
93	평양사립송실전문학교	송실대학교	만세고창, 백지답안 제출, 맹휴, 집단시위
94	평양사립송실중학교	송실고등학교	집단시위
95	평양사립송의여학교	송의여자고등학교	만세시위, 휴교
96	평양사립송인학교		만세시위, 휴교
97	평양사립송현여학교		집단시위
98	평양사립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만세시위
99	평양상수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
100	평양송인여학교		동요
101	평양안주공립농업학교		만세시위
102	평양종로공립보통학교		집단시위
103	학남공립보통학교		맹휴 및 시위계획
104	학동공립보통학교		집단만세시위
105	함남신창공립보통학교		시위
106	함흥공립고등보통학교		만세고창, 집단시위
107	함흥공립고등보통학교		맹휴
108	함흥공립상업학교		격문살포, 만세시위
109	함흥공립제2보통학교		집단퇴교 시도
110	함흥사립영생학교	수원영생고등학교	만세시위, 집단퇴교
111	화태공립보통학교		시위계획
112	회령공립보통학교		교외만세시위
113	회령공립보통학교부속 공업보습학교		맹휴
114	회령공립상업학교		집단시위 조직, 가두시위
115	회령사립보광여학교		만세시위
116	회령사립보흥여학교		집단시위계획, 휴교, 집단시위
117	회령여학교		휴교

7. 간도지역

연번	학교명	현재 학교명	참가형태
1	간도공립중앙학교		집단만세시위
2	간도두도구사립신흥학교		만세시위
3	간도두도구사립약수동학교		만세시위
4	간도두도구사립중평촌서당		만세시위
5	간도용정명신여학교		만세시위
6	간도용정사립개성소학교		만세시위
7	간도용정사립광명여학교		만세시위
8	간도용정사립대성중학교		집단시위
9	간도용정사립동흥소학교		시위
10	간도용정사립동흥중학교		집단시위
11	간도용정사립명진여학교		집단시위
12	간도용정사립영신중학교		격문살포, 만세시위
13	간도용정사립은진중학교		만세시위
14	간도용정사립해성소학교		시위
15	간도용정영신소학교		만세시위
16	길림대학		집단행동
17	길림성제4사범학교		만세시위
18	김림지나학교		격문살포
19	동아학교		시위
20	소하구선인학교		만세시위
21	신빈현화흥고등학교		시위
22	연길현노두구중흥학교		가두시위, 격문살포
23	연길현사립송신학교		집단시위
24	연길현상의향천보산보조서당		만세시위
25	연길현야소교촌보통학교		만세시위
26	연길현이도구보조서당구산학교		동요
27	연길현평강리사립학교		만세시위
28	의란구구룡평학교		시위
29	하얼빈제8중학교		동요
30	하얼빈특별구립제2중학교		시위
31	화룡현사립창동학교		만세시위
32	흥화현왕청문고등보통학교		만세시위

48 권
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